

# 2020년 한성대학교 문헌정보전공 소식지

(도서관정보문화트랙/디지털인문정보학트랙)



그림비

그림비는 순 우리말로 '청년', '젊은이' 를 의미합니다.



X 



# 연락망 및 학과홈페이지 소개

02876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진리관 402호  
02-760-4087 (크리에이티브 인문예술대학 통합사무실)  
02-760-4087 (문헌정보전공 학과사무실)

02876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우촌관 208호  
(문헌정보전공 학생회실)

[www.hansung.ac.kr/web/kis](http://www.hansung.ac.kr/web/kis) (문헌정보전공 학과홈페이지)

한성대학교 문헌정보전공 학생회 공식 SNS

- 페이스북 : 한성지정
- 인스타그램 : @hansung\_univ\_lis



# 내림비치

---

## 0. 시작하며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

20년도 그림비 소개

## 1. 학과소개

1-1. 도서관정보문화트랙 소개

1-2. 디지털인문정보학트랙 소개

1-3. 학과장학금 소개

## 2. 학생회 소개

2-1. 회장단 소개

2-2. 기획부

2-3. 도서활동부

2-4. 문화부

2-5. 홍보부

# 내림비치

---

## 3. 학생회 소식

- 3-1. 수시 OT
- 3-2. 온라인으로 대체된 신입생 행사
- 3-3. 온라인 보궐선거
- 3-4. 온라인 스승의 날 이벤트
- 3-5. 트랙설명회
- 3-6. 강순애 교수님 감사합니다.
- 3-7. 2학기 문정과 수업 만족도 조사
- 3-8. 온라인 총선거
- 3-9. 온라인 학술대회 & 문정인의 밤



# 내림비치

---

## 4. 기획기사

- 4-1. 기획부 기획기사 -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 실감 영상관 방문기
- 4-2. 도활부 기획기사 - 달아버린 도서관
- 4-3. 문화부 기획기사 - 학교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생활
- 4-4. 홍보부 기획기사 - 한성인에게만 알려주는 맛집지도
- 4-5. 코로나야, 우리가 봐줄테니까 우리의 2020년 돌려줘

# 내림비치

---

## 5. 집부별 활동소식

- 5-1. 기획부 활동 소식
- 5-2. 도서활동부 활동 소식
- 5-3. 문화부 활동 소식
- 5-4. 홍보부 활동 소식

## 6. 2020년을 마무리하며,

- 6-1. 회장단 소감 및 공약이행결과
- 6-2. 학생회 부원들의 한 해 소감

# 0

## 시작하며,

-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
- 20년도 그림비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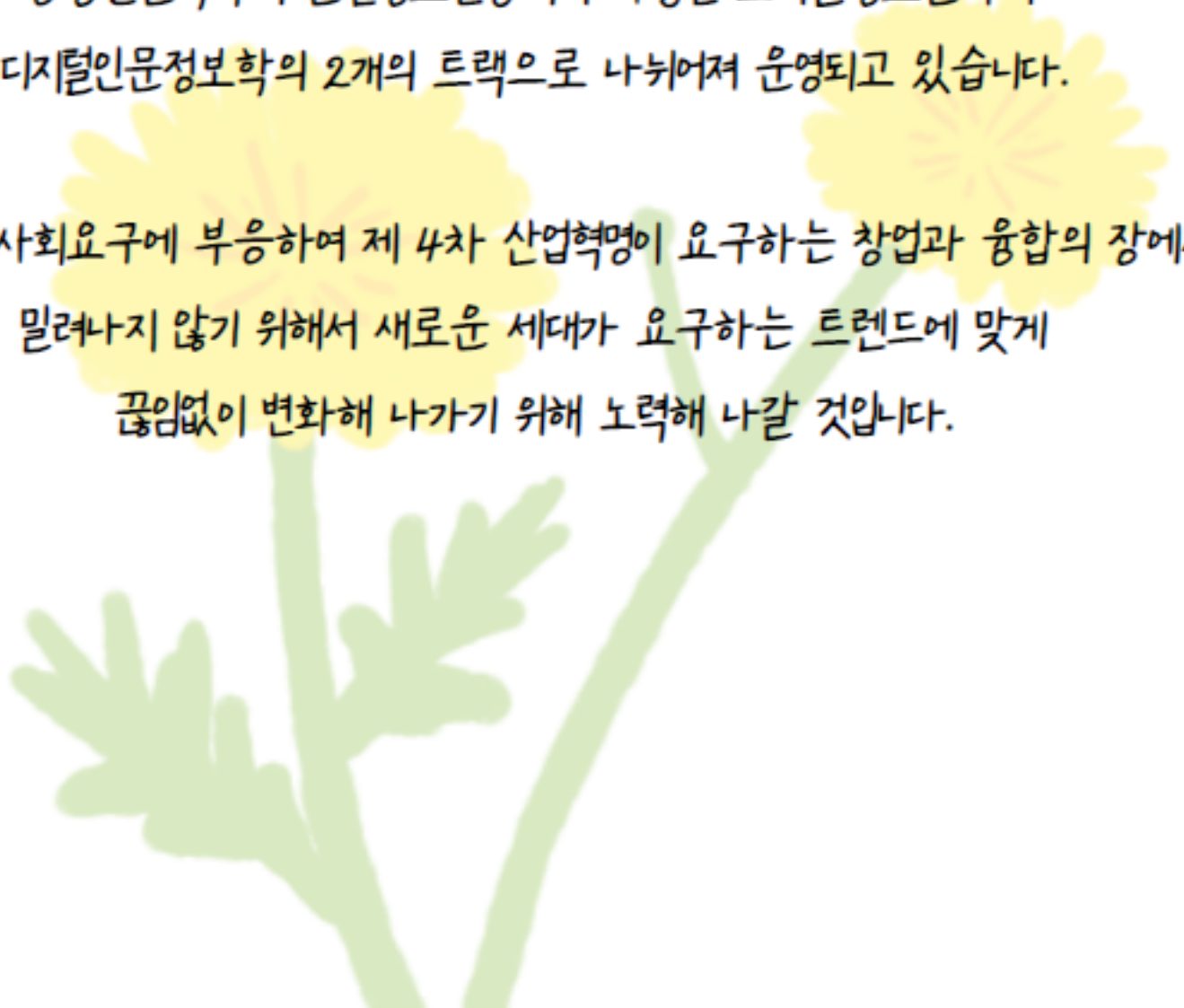
#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

한성대학교 지식정보학부는 2020년이면 창설 40주년이 됩니다.

학과 교수님들과 학생 및 동문들은 각 시기마다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고 어려운 고비들을 넘기면서 학과를 잘 발전시켜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학과는 2015 학번 기준으로 이전에는 지식정보학부에서 이후에는 응용인문학부의 문헌정보전공에서 파생된 도서관정보문화와 디지털인문정보학의 2개의 트랙으로 나뉘어져 운영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회요구에 부응하여 제 4차 산업혁명이 요구하는 창업과 융합의 장에서 밀려나지 않기 위해서 새로운 세대가 요구하는 트렌드에 맞게 끊임없이 변화해 나가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

학생들도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살아가야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지금의 학생들은 어린 시절부터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그 속에서 그들만의 세계를 만들어 자유를 만끽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일상에서는 오히려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를 펼칠 도구인 SNS와 인터넷이 있는 학생들은 권위주의적인 현실과 수직적인 시스템에 더욱 적응하지 못하고 있고 정신적으로도 상당히 취약해져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일상 안에서 서로 즐겁게 인사를 하고 안부를 묻고 문헌정보학을 통해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일상과 미래를 위해 응원하겠습니다.

2020년

한성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강순애

Ver.

2020

# 그림비 소개

그림비는 '청년'의 순 우리말로  
한성대학교 문헌정보전공 학생 소식지의 제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문헌정보전공 학생회 집행부인 '편집부'의  
많은 선배님들께서 이를 기획하고 발행해왔습니다.

하지만 20년도에는 편집부의 집행부장들의 부재와  
새로운 부원 모집의 어려움으로 인해 그림비 작성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37대 학생회 '시소'의 모든 구성원들이  
그림비 기획기사에 도움을 주어서  
이를 극복해가며 그림비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편집에 능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전의 그림비보다 글쓰기 및 편집실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읽어주셨습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1

## 학과소개

- 도서관정보문화트랙 소개
- 디지털인문정보학트랙 소개
- 학과장학금 소개



지적 자유를 지지하는 도서관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류 문화를 계승합니다.



## - 관련 분야 비전

지식정보 및 데이터 산업의 발달로 인해 정보전문가 (사서, 정보분석가, 정보컨설턴트, 데이터 분석전문가 등)에 대한 사회적 수요 증가

## - 양성인력목표

도서관 운영과 서비스에 필요한 제반 지식을 바탕으로 정보자원의 수집, 조직, 검색, 활용을 수행할 수 있는 사서 및 정보전문가 양성

## - 교육내용

도서관과 정보관리에 관한 핵심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실제 현장의 실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구성



지적 자유를 지지하는 도서관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류 문화를 계승합니다.

## - 트랙교육목표

- 기초 정보관리에 대한 개념적 이해
- 핵심 정보관리역량 강화
- 심화 정보분석 및 문제해결능력 강화
- 활용 정보관리 현장 실무역량 강화

## - 트랙육성역량

- 정보수집
- 정보조직
- 정보검색
- 정보분석
- 정보서비스

## - 연계트랙

트랙	추천트랙	진로 분야
도서관 정보 문화 트랙	디지털 인문정보학트랙	기록관리전문요원, 디지털큐레이터
	문학문화 콘텐츠트랙	출판기획자, 독서지도사, 북큐레이터
	역사문화 콘텐츠트랙	기록관리전문요원, 큐레이터
도서관 정보 문화 트랙	공직진출트랙	사서직공무원, 사서교사, 기록관리전문요원
	스마트도시계획· 환경비즈니스트랙	지역전문가, 지역아키비스트

## - 필수 교과목

- 정보학의 이해
- 서지학의 이해
- 장서관리론
- 정보자원의 기술과 접근
- 조직경영론
- 정보자원조직실습
- 도서관프로그램기획론

## - 직무역량 관련 자격증

정사서 2급 자격증, 기록관리전문요원(대학원 또는 교육원과정과 연계필요)

## - 졸업 후 진로

주요 직업: 사서, 사서교사, 기록관리전문요원, 정보관리전문가

융합 직업: 전산사서, 디지털큐레이터, 출판기획자, 북큐레이터, 해외 한국학사서, 도서관 국제활동가, 지역전문가, 지역아키비스트, 정보시스템 개발자, 도서관시스템 마케터

## 도서관정보문화트랙 비교과프로그램

### - 도합부 봉사활동

지역사회의 도서관 현장 업무를 지원하는 봉사활동 소모임  
\* 비교과포인트 4시간당 5pt (학기당 최대 50pt)



### - 독서모임 (책포래)

대상도서를 선정하여 독서모임을 진행하고 개인별 독서감상문을 제출하는 소모임  
\* 비교과포인트 팀장30pt, 팀원20pt

### - 정보검색의 세계 살펴보기

정보검색과 관심이 있는 주제 테마를 정하고, 테마에 적합한 조사를 하여 발표하고 서로의 노하우를 비교하는 소모임  
\* 비교과포인트 팀장30pt, 팀원20pt

### - 도서관정보문화트랙 답사팀

문헌정보학 전공과 관련된 기관(도서관, 기록관 등)을 방문하여 수업을 통해 학습한 내용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활동으로서의 답사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소모임  
\* 비교과포인트 팀장30pt, 팀원20pt

## 도서관정보문화트랙 비교과프로그램

### - 학과전공 튜터링

B+이상의 우수 학생이 튜티 4-5명을 구성하여 전공 과목 학습 노하우를 전달하는 소모임  
\* 비교과포인트 팀장30pt, 팀원20pt

### - 사서직공무원 준비반

사서직 공무원 시험에 대한 안내와 정보교류의 기회를 제공하는 소모임  
\* 비교과포인트 팀장30pt, 팀원20pt

### - 학술소모임

트랙 전공 학생들과 어울리며 같이 할 수 있는 트랙 전공과 관련된 문화활동, 창작활동, 창작활동 등 그룹시너지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활동을 하는 소모임  
\* 비교과포인트 팀장30pt, 팀원20pt



인문학에 디지털기술을 적용하여 세상에 없던 문화콘텐츠를 기획·가공합니다.



## - 관련 분야 비전

문화콘텐츠 산업 분야에서 다양한 플랫폼을 이용하여 정보제공 뿐 아니라, 기획, 선별, 구조화, 서비스 등의 디지털 큐레이션이 요구됨에 따라 이에 따른 전문인력 수요 증가

## - 양성인력목표

인문학에 디지털기술을 적용하여 문화콘텐츠를 기획, 축적, 가공할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한 디지털 큐레이터 양성

## - 교육내용

정보기술과 콘텐츠 관리, 유통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인문지식데이터와 정보를 체계적으로 조직하고 서비스하는 현장 적용 역량을 강화 할 수 있도록 구성



인문학에 디지털기술을 적용하여 세상에 없던 문화콘텐츠를 기획·가공합니다.

## - 트랙교육목표

- 기초 디지털인문정보학에 대한 개념적 이해
- 핵심 기본적인 콘텐츠 기획 및 구축 역량 강화
- 심화 IT 기술과의 융합을 통한 디지털 서비스 역량 강화
- 활용 문화콘텐츠 산업 현장 적용 역량 강화

## - 트랙육성역량

- 콘텐츠 기획
- 콘텐츠 관리
- 콘텐츠 분석
- 콘텐츠 서비스
- 디지털 큐레이션

## - 연계트랙

트랙	추천트랙	전로 분야
디지털 인문 정보학 트랙	도서관 정보문화트랙	디지털큐레이터, 사서, 기록물관리사
	역사문화 콘텐츠트랙	역사기록콘텐츠기획자, 문화유산 웹 기획자
	문학문화 콘텐츠트랙	문학콘텐츠 기획자, 디지털출판전문가
디지털 인문 정보학 트랙	빅데이터트랙	정보브로커, 데이터분석전문가
	디지털콘텐츠· 가상현실트랙	인문정보콘텐츠 개발자, 디지털서비스 전문가

## - 필수 교과목

- 인문정보콘텐츠
- 메타데이터의 이해
- 지식의 공유
- 지식구조론
- 디지털큐레이션
- 디지털서비스기획론
- 라키비움사례연구

## - 직무역량 관련 자격증

빅데이터자격증, 정보처리기사

## - 졸업 후 진로

- 주요 직업 : 디지털 큐레이터, 문화콘텐츠기획자, 정보관리전문가
- 융합 직업 : 역사기록콘텐츠기획자, 문화유산 웹 기획자, 문학콘텐츠기획자, 디지털출판전문가, 문화유산기관 국제활동가, 언어정보전문가, 정보브로커, 데이터분석전문가, 인문정보콘텐츠개발자, 디지털정보서비스전문가, 인터페이스디자이너, 문화유산 앱 개발자

## 디지털인문정보학트랙 비교과프로그램

### - 위키지킴이

인문학과 관련되는 주제를 위키콘텐츠로 기획하여 작성하고, 구축된 콘텐츠의 품질과 사이트를 유지·관리하는 활동을 진행하는 소모임

\* 비교과포인트 보고서제출시 30pt (학기당 최대 60pt)

### - 웹퍼블리싱 소모임 그림비

학과소식지 그림비를 온라인 콘텐츠로 개발하는 방법을 익히고, 최신호 및 기존 호를 웹에 출판하는 실습형 소모임

\* 비교과포인트 팀장30pt, 팀원20pt



### - 디지털 인문정보학 답사팀

디지털인문학의 소재가 될 수 있는 현장(유적지, 마을, 도서관, 박물관 등)을 방문하여 콘텐츠 구성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해당 주제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활동으로서 답사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소모임

\* 비교과포인트 팀장30pt, 팀원20pt

## 디지털인문정보학트랙 비교과프로그램

### - 영문이메일 작성법

한성 Success Frontier를 위한 해외 도서관과의  
영문 이메일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함양하는 소모임

\* 비교과포인트 팀장30pt 팀원20pt



### - 학과전공 튜터링

B+이상의 우수 학생이 튜티 4-5명을 구성하여 전공 과목 학습 노하우를 전달하는 소모임

\* 비교과포인트 팀장30pt, 팀원20pt

### - 사서직공무원 준비반

사서직 공무원 시험에 대한 안내와 정보교류의 기회를 제공하는 소모임

\* 비교과포인트 팀장30pt, 팀원20pt

### - 학술소모임

트랙 전공 학생들과 어울리며 같이 할 수 있는 트랙 전공과 관련된 문화활동, 창작활동,  
창작활동 등 그룹시너지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활동을 하는 소모임

\* 비교과포인트 팀장30pt, 팀원20pt



# 학과장학금 소개

## 도서관정보문화트랙 & 디지털인문정보학트랙

### - 교수장학금

문헌정보학전공 명예교수님과 재직교수님의 장학기금으로 지원

선발인원 : 2명

장학금액 : 1,000,000원 (총 2,000,000원)

신청대상 : 응용인문학부 문헌정보전공(16학번 기준) 및  
도서관정보문화트랙 / 디지털인문정보학트랙을 수강하고 있는  
3~7학기 재학생 중 평점 2.0 이상

### - 후배사랑장학금

문헌정보학전공 교직원 및 선배님들의 후원 장학기금으로 지원

선발인원 : 4명

장학금액 : 500,000원 (총 2,000,000원)

신청대상 : 응용인문학부 문헌정보전공(16학번 기준) 및  
도서관정보문화트랙 / 디지털인문정보학트랙을 수강하고 있는  
3~7학기 재학생 중 평점 2.0 이상





# 학과장학금 소개

## 도서관정보문화트랙 & 디지털인문정보학트랙

### - 학과전공튜터링

#### 참가자격

- (1) 튜터 : 평점 3.0 이상이고 해당 과목 교수의 추천을 받은 학생  
또는 해당과목에서 B+ 이상이고 해당과목 교수의 추천을 받은 학생
- (2) 튜티 : 특정 전공 (실습) 과목의 수강 신청 학생

\* 튜터링 구성원 : 1과목당 튜터 1명 - 튜티 4~5명

### - 트랙소모임 활동 장학금

활동장학금 : 팀당 최대 300,000원 지원

#### 참가자격

- \* 도서관정보문화/ 디지털인문정보학 트랙기초과목 (정보커뮤니케이션의 이해, 디지털과 지식콘텐츠) 을 수강중이거나 수강했던 1학년 학생 5명 이상
- \* 응용인문학부 문헌정보전공, 1트랙이 도서관정보문화트랙/디지털인문정보학트랙인 2~4학년 선배 1명 이상으로 이루어진 팀

# 2

## 학생회 소개

- 회장단 소개
- 기획부 소개
- 도서활동부 소개
- 문화부 소개
- 홍보부 소개

# 한성대학교 문헌정보전공 제 37대 학생회 '시소'



혼자서는 탈 수 없는 시소처럼  
필요할때 언제든지 도움이 되는 학생회,  
균형있고 함께하는 학생회라는 의미를 담아보았습니다.



## 회장단이란 ?

정학생회장과 학과 소속 두 트랙 (도서관정보문화 / 디지털인문정보학) 의 트랙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 학생회 회장단은 학생들과 학과를 위해 존재합니다.

학생들을 위해 각종 행사, 복지 등을 기획, 계획하며 실천합니다.

학과를 홍보하고 관련 활동을 주최하는 역할을 합니다.

## 회장단의 업무

### (1) 행사의 총괄

다양한 학과 및 학생회 행사를 기획단계부터 행사의 마무리까지 다양한 의견이 오고 갈 수 있도록 학생회 회의를 주최하고, 학생회 임원들을 통솔하여 전체 학생들이 원활하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한다.

### (2) 학생회 부서의 지원

학생회에 소속되어 있는 부서에 일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각 부서의 원활한 운영이 곧 학생회의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부서의 상황을 파악하고 지원을 한다.

### (3) 감사준비

각종 행사 및 운영에 쓰이는 학생회비를 투명하게 사용하여 감사기구에 감사를 받는 것을 준비합니다.


학생회 모집을 위해 집부소개 내용을 담은 카드뉴스입니다.

시소영보 1호

## 기획부

2020년 4월

기획부를 소개합니다.



문헌정보학과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기획부**에서는  
전반적인 학과 행사의  
기획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소영보 1호

## 기획부


2020년 4월

기획부의 활동을 소개합니다.

**기획**  
문헌정보전공 학생회의 대부분 활동을 기획  
문헌정보전공 학우들의 의견 수렴 및 추진

**답사**  
MT와 LT 숙소 사전답사 및 예약 진행  
새로운 동기, 선배들과 함께 만드는 추억

**간식사업**  
매 학기 종강, 기말마다 진행  
간식 설문조사 진행



## 기획부원을 뽑는 기준

**적극성**

문헌정보학과의 대부분의 행사 및 활동을  
기획하는 일이기 때문에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회의나 활동에 참여해주면 좋겠어요!

시소영보 1호


## 기획부

2020년 4월

(장래의 기획부원에게 하고 싶은 말)

저희 **기획부**는 다른 부서들보다  
학교에서 진행하는 행사가 많기 때문에  
매주 같이 회의하고 기획하는 일이 많을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의 기발한 아이디어와  
적극적인 참여 기대할게요!  
저희 진짜 재미있고 기억에 남는 활동들  
많이많이 기획할테니까  
많이많이 지원해주세요 ♡



학생회 모집을 위해 집부소개 내용을 담은 카드뉴스입니다.

## 도서활동부

시소영보 1호      2020년 4월

도합부를 소개합니다.

흔히 **도합부**라고 줄여 부르는 도서활동부는 학과 관련 **교외활동**을 중심으로 학우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활동을 제공하기도 하며, 학생회 업무와 더불어 **견학·봉사·프로그램 기획** 등 학과 관련 다양한 경험과 스펙 획득에 도움을 주는 부서입니다.



## 도서활동부

시소영보 1호      2020년 4월

도합부의 활동을 소개합니다.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등 다양한 도서관 견학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에서 정기적인 봉사활동  
성북구 북 페스티벌 책모꼬지 참여 및 부스운영

독서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NEW

책모꼬지를 준비하기 위해 미리 다양한 독서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실행해오는 활동을 새롭게 도입했어요!



## 도합부원을 뽑는 기준

**열정**

도서활동부는 학과와 관련된 활동을 기획하고, 직접 참여 하는 활동적인 부서입니다. **활동에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임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열정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인재가 꼭 필요합니다.

**아이디어**

활동과 프로그램에 초점을 두고 있는 부서인 만큼 **여러분들의 생소한 아이디어가 큰 힘이 됩니다.** 통통 튀는 아이디어로 도서활동부를 더욱 빛나게 해주고 싶은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배려와 협동**

견학, 봉사, 프로그램 기획 모두 혼자서 아닌 **함께 노력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부원들과의 좋은 관계유지와 협력이** 모여 명쾌하고 즐거운 도서활동부를 만들어냅니다. **서로를 위한 따뜻한 마음을 가진 지원자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 도서활동부

시소영보 1호      2020년 4월

미래의 도합부원에게 하고 싶은 말

**도서활동부**는 다양한 교외활동과 선후배 간의 친목도모와 봉사시간, 스펙 모두를 챙길 수 있는 큰 장점을 가진 부서입니다!

혹시 활동이 부담스러울까봐 걱정이신가요??  
도합부의 모든 활동은 **자율참여**로 진행되며 개인의 시간표에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학교생활 속 재미와 소속감 보장**한다는거!




학생회 모집을 위해 집부소개 내용을 담은 카드뉴스입니다.

시소영보 1호 **문화부** 2020년 4월

문화부를 소개합니다.

**문화부**는 도서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 기획하는 부서입니다.

카드뉴스 혹은 북 트레일러 영상을 제작하여 문헌정보전공 학우님들에게 다양한 도서를 추천해주는 알짜배기 부서입니다!



시소영보 1호 **문화부** 2020년 4월

문화부의 활동을 소개합니다.

카드뉴스, 북 트레일러 영상 제작




**마음에 맞는 책 한 구절** 꼭 써주세요! 도서관에서 읽은 책의 구절을 소개해주세요. -이런 책을 꼭 읽어주세요!

한성대학교 문헌정보전공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팔로우 한 학우님들에게 책 한 구절을 응원하는 메시지와 함께 보내드립니다!



## 문화부원을 뽑는 기준

문화부에 관심있는 사람  
책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싶은 사람  
재미있는 학교생활을 하고 싶은 사람  
열정이 넘치는 사람



시소영보 1호 **문화부** 2020년 4월

대중의 문화부에게 하고 싶은 말

**환 영 해 요**

낮가리는 성격때문에 학생회 활동을 주저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말고 지원해주세요!

다양한 콘텐츠 제작과 활동을 함께해요!  
재미있는 활동을 많이 기획했습니다!  
열정만 있다면 문화부로 오세요!

학생회 모집을 위해 집부소개 내용을 담은 카드뉴스입니다.

## 홍보부


시소영보 1호      2020년 4월

홍보부를 소개합니다.

홍보부에서는 학과공지를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요 행사 일정과 학과소식들을 많은 학우에게 홍보하고 선전하는 것이 저희 홍보부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

- 학과의 크고 작은 행사일정 홍보
- 학과 SNS 관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 학과소식 및 행사 정보제작



## 홍보부

시소영보 1호      2020년 4월

홍보부의 컨셉트를 소개합니다.

### 학과소식 및 행사 정보제작





### 학과 SNS 관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한성대학교 문헌정보전공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  
한성지팡이



한성대학교 문헌정보전공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

**NEW**

## 홍보부 입부 기준

- 애교심**      학과와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이 누구보다 뛰어난 분을 위하여! 홍보부에서 만드는 글과 게시물들이 곧 학과의 얼굴이 되기 때문에 정말 사랑으로 일하실 분을 원합니다
- 경청**        홍보부는 수많은 아이디어가 오고 가는 집부예요!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내는 것 보다, 작은 아이디어라도 경청해주고 반영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친근함**      무조건 적극적으로 부원들을 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홍보부는 다양한 학년과 다양한 나이의 부원들이 있는데 잘 어울릴 수 있는 분을 원합니다. 소극적인 분들도 좋아요! 친절하라도 마음을 열어줄 수 있는 분이면 좋습니다
- 집단성**      홍보부는 정해진 홍보도는 유용하지만 편의성으로 업무를 처리합니다. 자비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분들 이외에는 다양한 아이디어들로 논의하여 최종적으로 제작을 합니다. 홍보부의 집단자성의 도움을 잘 아이디어뱅크, 환영합니다.

## 홍보부


시소영보 1호      2020년 4월

대전의 홍보부원에게 하고싶은 말

홍보부는 **센세이션한** 부서입니다. 기존의 딱딱하고 진부한 그런 모임이 절대 아니예요! 다양한 나이의 사람들이 다양한 분야에 있기 때문에 **학교상당이나, 학과질문, 성적상담** 모두 자유롭게 무엇보다 저희는 **수령제**도입니다 ^^

잘 놀고, 잘 웃고, 분업까지 잘하는 홍보부로 꼭 오주세요. 한 번뿐인 대학생들 홍보부에서는 후회 없으리라 장담합니다.

정말 한성대의 이벤저스가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꼭 당신이 우리의 마이언젠가 되어주세요! ♥



홍보부에 들어와서 비교과 포인텐드, 학우관계도 좋거기세요



# 3

## 학생회 소식

- 수시 OT
-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신입생 행사
- 1학기 문정과 수업 만족도 조사
- 온라인으로 진행한 보궐선거
- 온라인 스승의 날 이벤트
- 코로나 상황에서의 H 방역 트랙설명회
- 강순애 교수님 감사합니다.
- 2학기 문정과 수업 만족도 조사
- 온라인 도서관 대회
- 온라인 총선거
- 온라인 학술대회 & 문정인의 밤

# 학생회 소식

## 수시 OT

기사 / 편집 : 이지희



2020년 1월 16일과 17일,  
20년도 한성대학교에 신입생으로 입학하는  
수시 입학 신입생들을 위한 OT 행사가 진행되었다.

학교로 와서 트랙 부스를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신입생들의  
모습에는 새로움과 기대감으로 부푼 것을 볼 수 있었다.

트랙에 대해서 낯설어 하는 신입생들에게  
도서관정보문화트랙과 디지털인문정보학트랙을 소개하고자  
많은 학생회 학우들이 노력을 하였다.

## 걱정과 기대

지난 해 상상관 지하 2층 체육관에 위치하여 비교적 접근성이 좋았던 부스위치에 비해 올해는 정말 안 좋은 위치를 선정받게 되었다.

상상관 지하 2층 세미나실을 마주보고 있는 곳에 두 트랙의 부스가 있었다. 상상관 지하 2층으로 들어오는 입구와는 등지고 있는 위치였다.

그래서 신입생들이 부스의 위치를 제대로 못찾게 되거나, 우리 트랙에 관심이 없어서 설명들으려 하지 않으면 어쩌나 걱정했다.

이러한 걱정과 함께 올해는 어떤 새내기 친구들이 학교에 들어올지 궁금하기도 했고 기대가 되었다.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많은 신입생들이 트랙설명을 듣기 위해 접근성이 안좋은 트랙부스까지 발걸음을 해주었다.

갑자기 많이 몰리게 되면서 설명을 듣기 위해서 차례를 기다려야하는 상황도 생기게 되었다.



## 신입생들의 질문

신입생들은 트랙부스에서 설명을 듣고 트랙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이들이 주로 궁금해 했던 사항은 다음과 같다.

타 트랙과의 연계성, 트랙과 관련된 진로사항, 트랙에서 배우는 수업들이다.

정말 다양한 신입생들이 위 내용을 질문하였다.

신입생과 대화를 나누면서, 어떤 트랙에 관심이 있는지 역으로 질문해보았다.

생각치도 못한 다양한 트랙과의 연계를 생각하고, 다양한 꿈을 가지고 입학한 신입생들이 많아서 놀라웠다.

당찬 포부로 가득한 신입생들에게 학과 관련 소모임과 학생회, 장학금 등을 설명해주면서 트랙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기 위해 노력했다.

## 학생회 첫 행사를 마무리하며,

20년도 학생회로 첫 행사였던 수시OT는 걱정과는 다르게 트랙부스에서 좋은 성적을 내며 마무리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행사를 도와주려 많은 선배들이 방문해주었다. 덕분에 행사를 잘 끝낼 수 있었다.

모든 일정이 완료된 이후에 조장과 부조장을 맡은 학생회 임원들의 조원들과 함께 뒷풀이 장소로 이동하여 친목의 시간을 가졌다.



# 학생회 소식

##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대체되는 신입생 행사들

기사 / 편집 : 이지희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도 유입되어 2월에 예정되어 있던 정시OT, 새내기배움터, 예비학교 등의 신입생 행사가 모두 취소되었다.

대학생활을 위해 다양한 정보를 얻고 선배들을 만나볼 수 있는 행사가 모두 취소되는 바람에 수시OT에 참여하지 못한 신입생들은 아무런 정보없이 수강신청을 해야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학교측은 이러한 신입생들을 위해 학교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온라인 행사와 콘텐츠를 생산하도록 하였다.

## 정시OT 대체 트랙설명영상

학생회에서는 첫 번째로 트랙설명영상을 제작하게 되었다. 콘텐츠 제작에 익숙하지 않았던터라, 영상촬영과 편집에 어려움을 겪었다. 학생회 임원 중에 동영상 편집을 취미로 하던 학우가 있어서 다행이었다.

트랙의 기본적인 소개와 연계트랙, 교육과정, 관련 직업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 내용을 전부 영상으로 담기에는 영상길이가 길어졌고, 지루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도서관정보문화트랙의 트랙설명영상은 1트랙을 도서관정보문화를 선택한 이지희(18), 이민경(19), 최민수(19) 학우가 촬영에 참여하였다.

트랙과 관련한 다양한 질문들을 출연자들이 뽑아서 해당하는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트랙의 기본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재학생으로, 트랙을 수강했던 선배로 이야기해주고 싶은 재미있는 에피소드 및 이야기들로 구성하였다.

영상의 끝부분에는 '도.서.관' 으로 삼행시를 지어보는 등의 오락적인 요소도 넣었다. 이 부분이 과연 시청하는 이들에게도 재미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다.



디지털인문정보학트랙 설명영상은 1트랙을 디지털인문정보학을 선택한 이재성(19), 금다빈(19), 윤범진(19) 학우가 촬영에 참여하였다.

도서관정보문화 트랙설명영상과 동일한 방법으로 다양한 질문들을 뽑아서 대답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마찬가지로 트랙의 기본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재학생으로, 트랙을 수강했던 선배로 이야기해주고 싶은 재미있는 에피소드 및 이야기들로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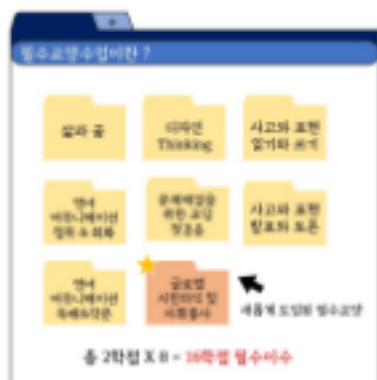
질문을 뽑은 순서를 정하는 방법으로 간단한 이구동성 게임을 하였다. 영상 도중에 트랙을 선택할 때 꿀팁, CC 후기 등을 유쾌하게 이야기해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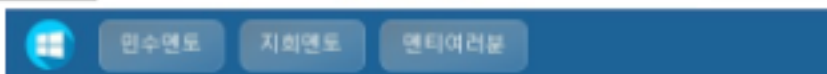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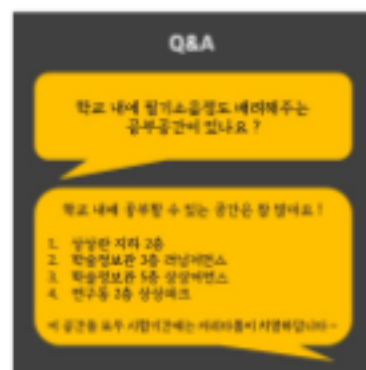
# 온라인 멘토링

1학년 신입생들의 수강신청을 앞두고, 학교생활을 알려주기 위한 멘토링을 진행하였다. 약 23~24명으로 구성된 신입생 멘티들과 재학생 멘토 2명들이 약 3주동안에 걸쳐 학교생활 정보들을 알려주었다.

문헌정보전공 학생회는 멘토링 3조와 4조를 배정받았다. 3조는 이지희(18)와 최민수(19), 4조는 이재성(19)과 이주진(19) 멘토로 구성되었다.



## 1 STEP 한.잘.알 기초



3조의 1차 멘토링은 '한잘알 기초' 편으로 신입생들의 수강신청을 돕기 위해 교양과목, 트랙기초수업, 선택필수교양, 학점관리 등의 설명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학교시설 소개와 등교 꿀팁도 알려주었다.

멘토링 전에 궁금한 질문사항을 미리 받은 뒤, 답변해주었다.



### 3 STEP

### 한.잘.알 완성

### 2

### STEP

### 한.잘.알 중급



2차 멘토링은 '한잘알 중급' 편으로 학점만큼 중요한 비교과포인트를 잘 모으는 방법을 멘토들의 경험을 살려서 설명해주었다.

그리고 학교의 다양한 장학금제도의 소개와 신청방법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마찬가지로 기존에 받았던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해주는 시간을 가졌다.

3차 멘토링 시간에는 '한잘알 완성' 편을 진행하였다.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로 학생회, 동아리를 소개해주었다.

그리고 학교 주변 맛집과 학식 메뉴를 추천해주었다.

3차 멘토링 이후에는 퀴즈쇼를 진행하여,

최종 인예대 퀴즈쇼에 참여할 신입생을 선발하였다.

카카오톡으로 진행되는 멘토링에 집중을 못했을 수도 있었는데, 많은 신입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었다.



그리고 3조는 활동의 적극성을 인정받아 '우수상' 을 받게 되었다.

# 학생회 소식

## 온라인 보궐선거

기사 / 편집 : 이지희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3월,  
2020년은 코로나로 인해 그 어느때보다 조용한 3월이었다.

지난 겨울방학부터 코로나 상황에 대비하여 열심히 노력한  
학생회 단위별 '건설준비위원회'들의 선거가 온라인으로 시작되었다.

문헌정보전공 학생회에서도 두 트랙장 후보에 대한 선거를 진행하였다.



원래는 선거유세운동으로 시끌벅적했을 학교의 모습과는 다르게  
이번 보궐선거는 조용하게 이루어졌던 것 같다.  
선거유세도 온라인 자료를 업로드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기존에 중앙기구선거가 완료된 일주일 이후에 시작하는 단대선거는 온라인 투표 프로그램 사용의 이유로 함께 진행하게 되었다.



많은 보궐선거 후보자들이 선거유세운동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다. 그 노력의 결과 투표율을 비교적 쉽게 얻어 선거를 마칠 수 있었다.

# 학생회 소식

## 온라인 스승의 날 이벤트

기사 / 편집 : 이지희

코로나는 스승의 날 교수님들에게 감사함을 전하는 모습도 바꿔놓았다.

무작정 카네이션과 감사함을 작성한 롤링페이퍼를 들고 교수님의 연구실로 찾아갈 수는 없게 되어, 메시지로 전하기로 하였다.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은 교수님에게 간단하게 편지를 작성하는 네이버 폼을 마련한 뒤, 이를 추합하여 롤링페이퍼 이미지로 제작하였다.

학생회 회장단은 5월 15일 스승의 날에 카카오톡으로 이를 교수님들께 보내드렸다.



**2020년 스승의 날**

문헌정보전공 교수님들에게 감사함을 표하는 온라인 롤링페이퍼

'코로나 19'로 1학기가 온라인 강의로 진행되어서 기존에 과실에 배치하여 교수님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하던 롤링페이퍼를 작성하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현 상황을 고려하여 **네이버 폼**을 통해 여러분들이 교수님들에게 전하고 싶은 감사 메시지를 받으려고 합니다!

대면수업에서 만나지 못해 보고싶은 교수님들에게 스승의 날 감사 인사를 작성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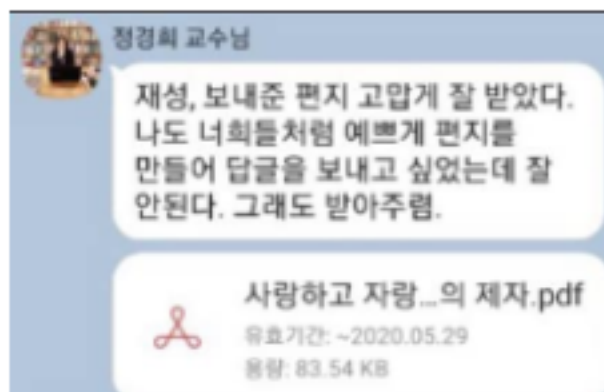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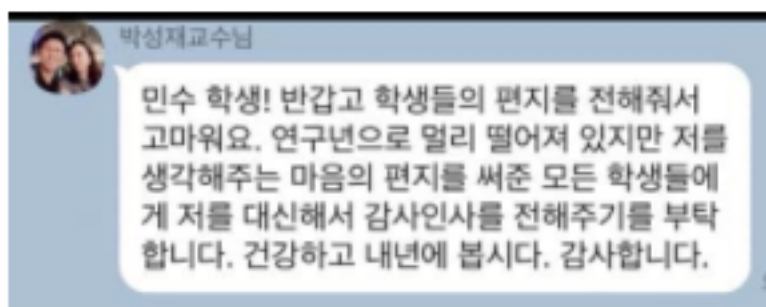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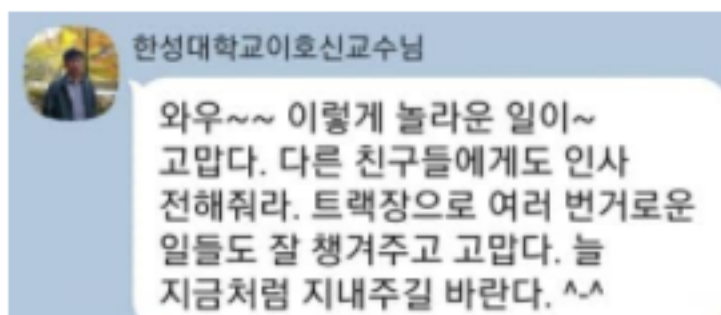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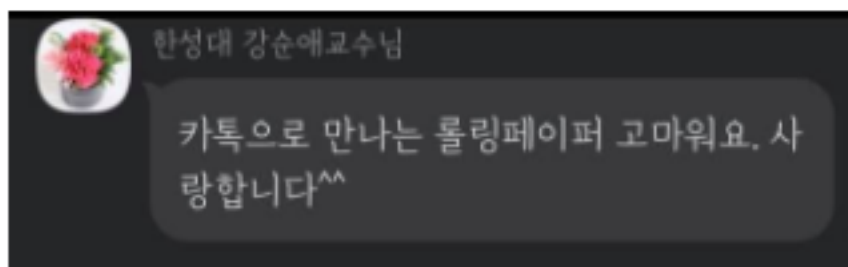
네이버 폼 주소 : <http://naver.me/F7sZYa9P>

문헌정보전공 학생회 '시소'



스승의 날 만큼은 직접 찾아뵙고 교수님들과 간단한 이야기를 나누며 감사함을 전하고 싶어서 안타까웠다.

하지만, 교수님들께서는 학생들의 편지에 따뜻한 답변을 남겨주셨다.





# 학생회 소식

## 트랙설명회

## 온라인 팀 상담회

기사 / 편집 : 이지희

트랙을 선택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신입생들을 위해 매 학기마다 트랙설명회를 열어서 지도교수님을 만나고, 트랙의 다양한 선배들을 만나보는 트랙설명회도 취소되었다.

5월 18일에

문헌정보전공 교수님들은 온라인으로 트랙기초수업을 듣거나, 트랙에 관심이 있는 신입생들을 위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셨다.

웹엑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화상채팅하였다.

이 행사에 회장단도 참여하여, 학생회 홍보 및 재학생에게 궁금한 점을 질문받아 알려주는 역할을 하였다.

학생회 활동

03  
...

문헌정보전공 학생회에서 이런 활동을 합니다!

이 행사는 앞으로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상황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한 시간의 차이를 두고 진행된 트랙 팀 상담회는 생각보다 많은 신입생들이 실시간으로 참여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교수님들께서는 담당하고 계시는 수업을 소개하면서, 트랙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주기 위해 노력하셨다.



교수님들께서는 처음 마주하는 신입생 친구들의 자기소개와 트랙에 대해서 궁금한 점, 트랙기초수업을 듣는 이유 등의 질문을 하시며 적극적으로 교류하였다.

코로나로 인해 다양한 행사가 취소되면서, 20학번 신입생들을 이렇게 많이 마주하는 것은 처음이어서 떨렸다.

많은 신입생들이 참여했던 이 행사에서 학생회 홍보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기대가 컸다.

## 대면 트랙설명회

학교에서는 20학번 신입생들이 학교를 한 번도 오지 않은채로 1학기를 보내게 해야한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껴

트랙기초수업의 일시적인 대면수업을 강행하였다.  
분반별 수업시간이 끝나고서는 트랙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트랙설명회는 30분만 진행하도록 하고,  
설명회 전 후에는 환기 및 방역을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설명을 하는 교수님과 도우미들은 마스크와  
페이스시ールド를 착용해야만 했다.

이에 대해 많은 반발이 있었지만, 디지털인문정보학 트랙의 대면수업은  
예정대로 이루어졌고, 트랙설명회 또한 진행하게 되었다.



마스크와 페이스시ールド까지 이중으로  
끼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만 말을 해도  
숨이 가쁘고 더웠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교수님과  
조교님, 그리고 학생회 부원 도우미들  
은 열정적으로 설명을 하였다.

어려움이 많았지만,  
이 설명회를 통해서  
많은 신입생들이 도움을 받았다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 학생회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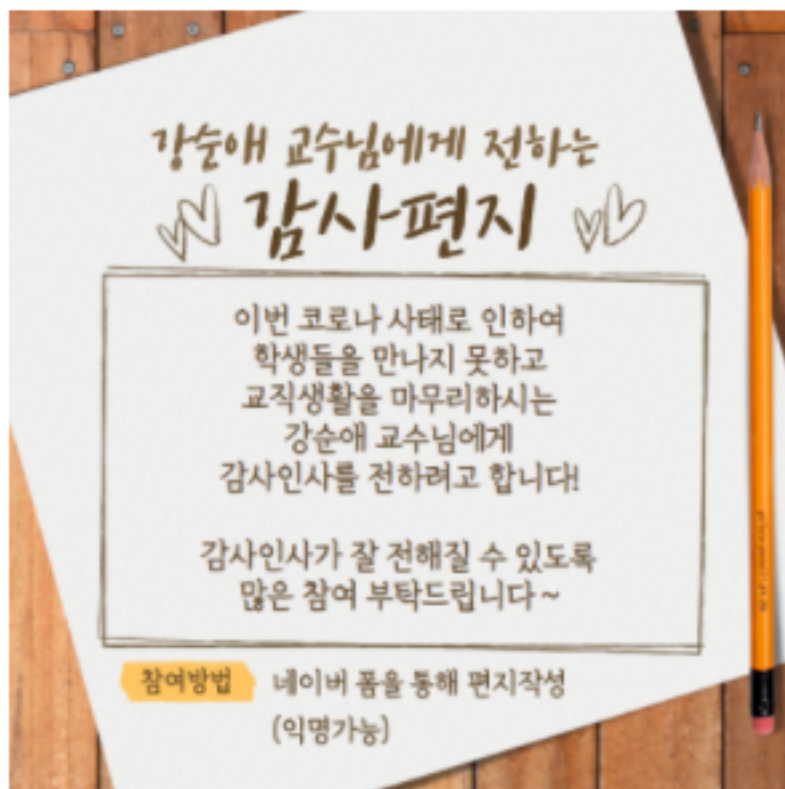
강순애 교수님 감사합니다.

기사 / 편집 : 이지희

정말 오랜기간동안 학생들을 사랑으로 지도해주신  
문헌정보전공 강순애 교수님께서 20년 1학기를 마지막으로  
정년퇴직을 하셨다.

스승의 날에도 제대로 된 감사인사를 전하지 못하여  
소수의 학생회 임원이 교수님을 찾아뵙고 인사드리게 되었다.

1학기에 강순애 교수님의 수업을 들은 학생,  
휴학을 했지만 교수님에 대한 감사인사를 전하고 싶은 학생들이  
온라인을 통해 편지를 작성해주었다.





카네이션은 아니지만  
꽃다발과 함께  
학생회에서 제작한 감사장과  
학생들의 편지들을 교수님께  
전달하였다.



교수님께서도 마지막 수업에서 학생들을  
직접 만나지 못한 것이 너무 아쉽다고 말씀하셨다.

교수님을 찾아가서 감사함을 전달한 학생회 임원들에게도  
조언과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앞으로의 미래를 응원해주셨다.  
그동안 학생들을 사랑과 애정으로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 학생회 소식

## 2학기 문정과 수업 건의사항 및 설문조사 내용

기사 / 편집 : 이지희

20-1학기에는 전면 온라인 강의 수업을 진행하였으나, 2학기에는 블렌디드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블렌디드란, 온라인 강의수업과 대면수업을 2:1 비중으로 진행하는 수업을 말한다. 즉, 2시간 온라인 강의를 수강한 뒤 1시간 가량의 대면수업을 참여하는 것이다. 실습과목의 경우 원활한 수업이 진행되지 않았던 문제를 개선하고자 계획했던 수업방식이다.

하지만, 2학기 시작과 동시에 코로나가 수도권 중심으로 다시 확산되면서, 이 대면수업은 웹엑스, 줌, 스카이프 등을 활용한 온라인 실시간 수업으로 대체되었다.

자꾸 변동되는 수업방식에 교수님과 학생들 모두 혼란을 갖게 되었다. 학교와 학생회 측에서는 온라인 강의 수업의 질적인 면과 다양한 건의사항들을 조사하고 개선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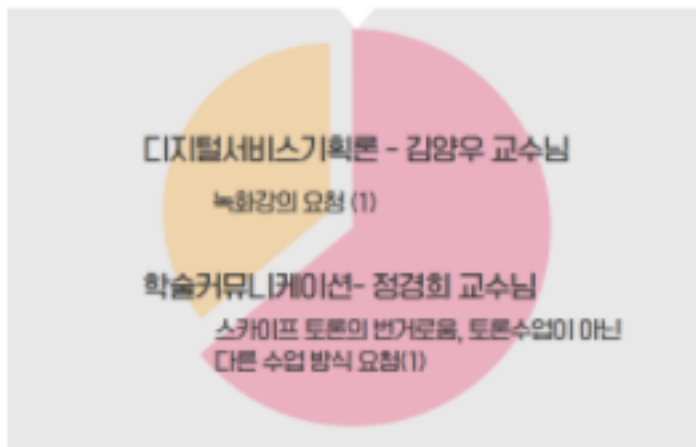
따라서 문헌정보전공 학생회도 자체적으로 수업의 건의사항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매주 접수되는 수업의 건의사항은 정리하여, 각 수업의 트랙에 따라 트랙장들이 교수님에게 직접 전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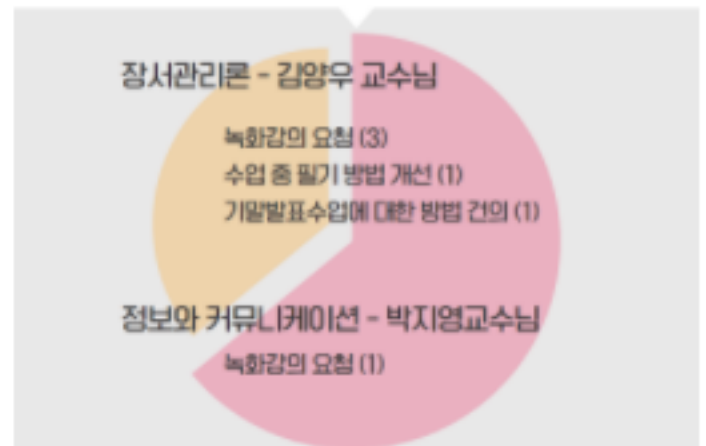
### 디지털인문정보학트랙

디지털인문정보학트랙 수업 건의사항입니다.



### 도서관정보문화트랙

도서관정보문화트랙 수업 건의사항입니다.



위의 사진들이 트랙별 건의되었던 사항들이다.

강의의 방식 및 개선점에 대한 내용 등 정말 다양한 건의가 접수되었다.

그만큼 수업을 듣는 학우들도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수업에 대해 불만이 많고 어색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디지털인문정보학트랙

디지털인문정보학트랙 수업 건의사항에 대한  
교수님들의 답변입니다.

### 디지털서비스기획론 - 김양우 교수님

건의사항에 대한 의견은 실시간 수업에 이야기하겠습니다.

### 시맨틱웹구축 - 이지수교수님

수업 분량에 대한 부분을 조정하여 부담을 덜게 할 예정입니다.

### 기록정보조직론- 이호신교수님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의 집중도를 위해서  
짧은 시간의 강의를 많이 업로드 한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에 대한 이유를 제시하면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헌정보전공 트랙 (도서관정보문화 & 디지털인문정보학) 을 수강중인  
학우들의 건의사항들에 대한 답변들은 정리하여 학생회 sns에 게시하였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교수님들도 수업개선에 대해서 노력해주시고,  
다양한 개선점에 대해서 학우분들도 많은 의견을 내주었다.

10월 경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잠시 완화되어 실습을 필요로 하는 수업들이  
대면수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 긴급 대면수업 중지 설문조사

시험을 2주 앞둔 11월 말 경, 수도권 중심 코로나가 다시 극심해졌다.  
정부에서는 아직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지 않았지만,  
대면수업을 가야하는 상황에서 문헌정보전공 수업을 수강하는 학우들의  
걱정의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대해서 학생회는 당장 다음주 평일부터 진행되는 대면수업들을 파악하고 수업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시작하였다.

설문조사는 수업방식에 대한 조사였다.

설문조사는 실명으로 이루어졌고, 원하는 수업방식과 그 이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작성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짧은시간 동안 진행하였지만, 정말 많은 학우들이 설문에 참여해주었다. 설문에 참여해 준 많은 학우들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할 것을 요청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를 작성해주었다.



“

현재 서울과 수도권에서 300명 이상씩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가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학교에 등교해야하고, 교실에서 토론 및 수업을 들어야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기 이전에 충분히 온라인 실시간 수업을 진행하던 터라, 대면수업을 무리하게 강행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



그 밖에 많은 학생들이 담당 교수님들에게 수업관련 메일을 보내서, 교수님들은 그 날 저녁에 긴급학과회의를 진행하셨다고 한다.

그 회의에 학우들의 설문조사 내용을 전달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다.

이에 교수님들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나오기 이전에, 진행하던 대면수업을 온라인 실시간 수업으로 대체하시겠다는 결정을 내리셨다.

이지희 학생회장에게,

11/22(일) 금일 긴급 학과회의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

최근 학교본부의 '사회적거리두기 단계상향에 따른 수업운영공지'의 권고사항과 지난주부터 있었던 학생들의 건의를 반영하여, 2단계 격상 하루전날인 23일(월)에도 대면수업을 온라인실시간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음.

학부장 김양우 교수



올해 학생회의 역할은 학교행사를 기획하는 것 보다는 학우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소통하고,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 학생회 소식

## 20년도 온라인 총 선거

기사 / 편집 : 이지희

코로나로 인해 2020년을 너무나도 허무하게 보내게 되었고, 보다 나은 2021년을 위해 노력하는 학생회를 선발하는 선거가 시작되었다.

문헌정보전공학생회에서는 정학생회장, 두 트랙장 후보자들이 모두 선거에 나오게 되었다.

문헌정보전공 선거공약서

**'문헌정보전공 정학생회장 후보'**



**김도원**

-소모임 및 학과 온라인 콘텐츠 활성화  
-회의 내용, 학생회비 사용 내역 투명 공개  
-수요조사 후 과실에 책임질 용의 및 대의

2020.11.11  
2021.02.28  
2021.05.31  
2021.08.31  
2021.11.30

문헌정보전공 선거공약서

**문헌정보전공 트랙장 후보**

1. 트랙 단톡방 활성화
2. 트랙 선후배제도 활성화
3. 다양한 친목도모 기회 제공

**기호 1번**

**이민경**



**소속**  
도서관정보관리학  
디지털정보통신학

2020.02.11  
2021.02.28  
2021.03.31  
2021.04.30  
2021.05.31  
2021.06.30

문헌정보전공 선거공약서

**문헌정보전공 트랙장 후보**

- 졸업생과의 커뮤니티 활성화
- 학과 홈페이지 활성화
- 디지털 인문정보학트랙 차별화한다

**이주진**



**1**  
한성대학교

2020.11.11  
2021.02.28  
2021.03.31  
2021.04.30  
2021.05.31  
2021.06.30

20년도 총선거는 보궐선거와 동일하게 중앙기구의 선거와 같은 날짜에 투표가 이루어졌고, 선거유세활동은 온라인을 통해서만 가능하였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인문예술대학 선거관리위원회' 페이스북에 후보자들의 선거유세자료들을 업로드하여, 많은 학우들이 후보자들의 유세자료를 볼 수 있도록 하였다.

## 후보자들의 선거 공약 소개

문헌정보전공 정학생회장 후보

"김도원"



제 38대 문헌정보전공 정학생회장 선거 후보로 출마하게 된 19학번 김도원 학우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공약을 지킬 것을 약속하였다.

첫 번째로 소모임 및 온라인 콘텐츠의 활성화이다.

현재 다양한 학과 소모임이 운영되고 있으나, 참여도와 관심이 낮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생각한다고 한다. 따라서 많은 학우들이 필요로 하는 자격증 스터디, 전공 관련 취미활동 소모임 등을 만들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추가적으로 코로나 상황에 대비하여 학과소식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다양한 영상콘텐츠, 카드뉴스 등의 제작을 활발하게 이루겠다고 하였다.

다음 공약은 회의내용 및 학생회비의 사용내역 공개이다.

학생회에서 진행되는 회의의 내용과 학생회비 사용내역을 꼼꼼하게 기록하여 분기별로 학생회 sns에 공개하여 청렴하고 떳떳한 학생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학생회실에 다양한 물품을 배치하여 학우들이 불편함 없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제 3대 도서관정보문화트랙 트랙장 선거 후보로 출마하게 된 19학번 이민경 학우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공약을 지킬 것을 약속하였다.

첫 번째 공약은 트랙 단톡방 활성화이다.

한성대학교의 학과제도가 트랙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많은 학우들이 소속감을 갖지 못하고 다양한 정보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다양한 학과 행사 등의 정보를 빠르게 공유하고 도서관정보문화트랙을 선택한 학우들의 소속감을 높이기 위해 단톡방을 개설하겠다고 하였다. 이는 트랙에 대한 고민이 많은 신입생들에게도 트랙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두 번째 공약은 트랙 선후배제도의 활성화이다.

앞서 언급했다싶이, 트랙제도의 단점은 소속감의 부재와 선후배 간의 소통의 단절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 따라서 '뽀선뽀후제'에서 차용하여 도서관정보문화트랙 학우들을 위한 선후배제도를 시행하려고 한다. 매 학기 지원을 받아 선배와 후배를 매칭하여 트랙선택, 학과공부, 진로계획 등의 고민을 털어 놓을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한다고 한다.

마지막 공약은 다양한 친목도모의 기회를 제공하여 올해 코로나로 인해 취소되었던 다양한 행사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한다는 것을 약속하였다.





제 3대 디지털인문정보학트랙 트랙장 선거 후보로 출마하게 된 19학번 이주진 학우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공약을 지킬 것을 약속하였다.

첫 번째는 졸업생들과의 커뮤니티 활성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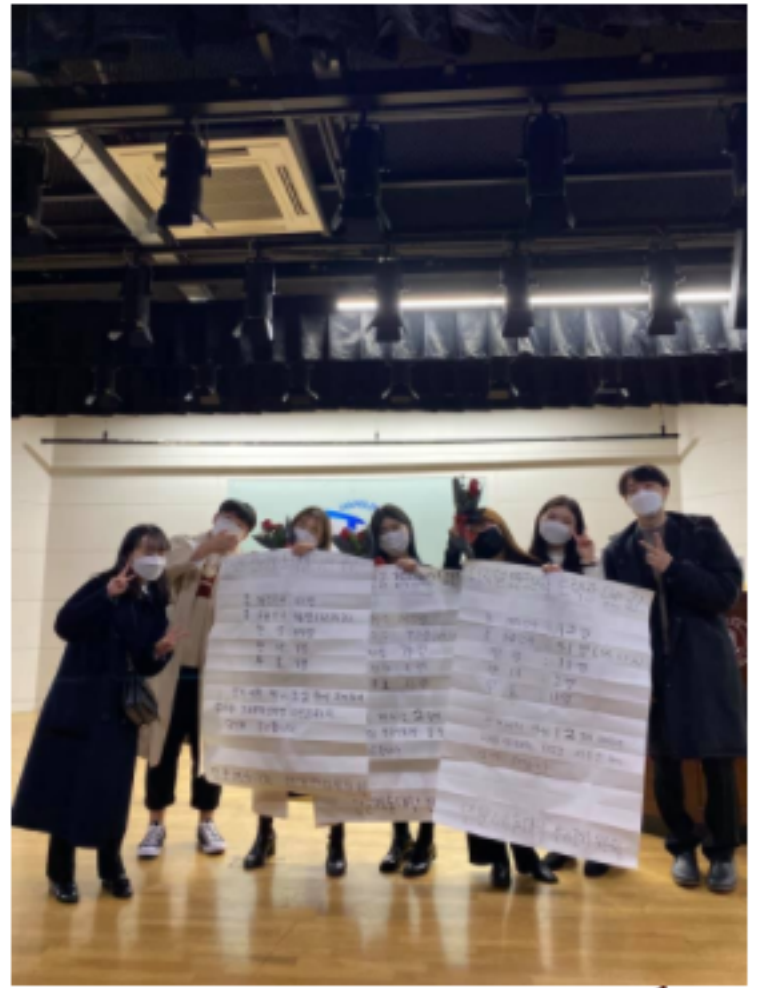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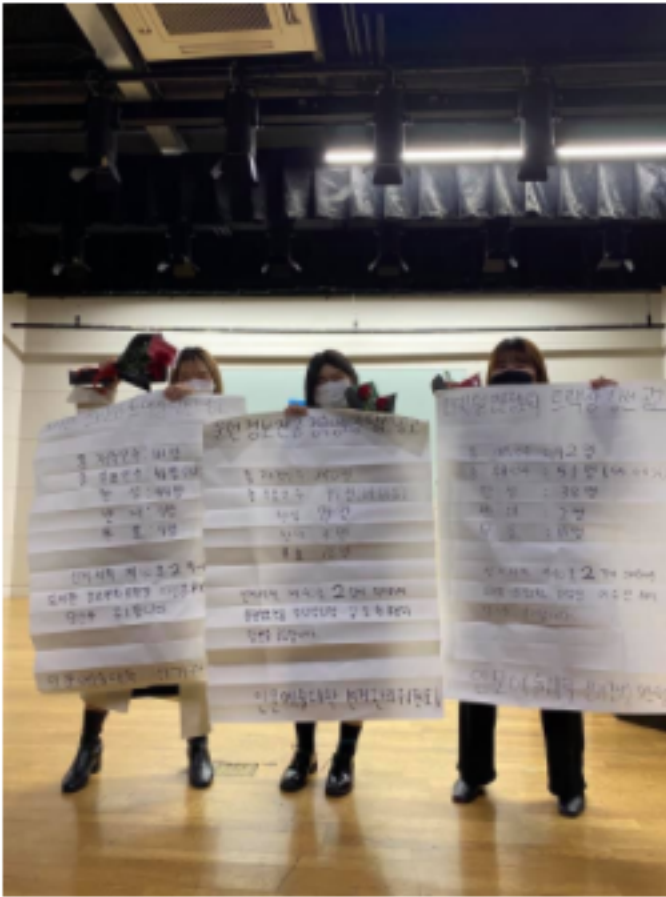
학교생활 중에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신 선배님들과의 만남은 진로에 대한 이해도와 방향성을 잡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한다. 따라서 관심있는 분야의 선배님들을 찾아서 현장의 분위기를 느끼며 소통하고 도움이 되는 커뮤니티를 개설하겠다고 하였다.

두 번째 공약은 디정트랙 캘린더이다.

디지털인문정보학트랙을 수강하는 많은 학우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학과행사, 공지사항 등을 월별 캘린더로 제작하여 공유한다고 한다. 캘린더는 학년별 학교일정 및 학과공지사항들을 월별로 정리하여 게시한다고 하였다.

마지막 공약은 학과 홈페이지 활성화이다.

다양한 공지사항을 전달하는 학과 홈페이지의 이용이 원활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여 개선하고자 한다고 한다. 보다 전달력 있고 학우들의 의견도 들을 수 있는 소통의 창으로 거듭나기 위해 개선할 것을 약속하였다.



11월 26일과 27일 이틀동안 진행된 온라인 투표를 통해서 이 세 후보자(김도원, 이민경, 이주진)들은 당선되었다.



당선공고식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지침에 따라, 소강당에서 단대별로 나눠서 진행하였다. 방역을 철저히 진행하였고, 후보자들을 거리를 두고 좌석에서 당선공고를 대기하였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이 후보자들의 당선을 축하하는 뒷풀이는 없었다. 당선공고식에서만 간단히 기념사진을 찍은 뒤, 해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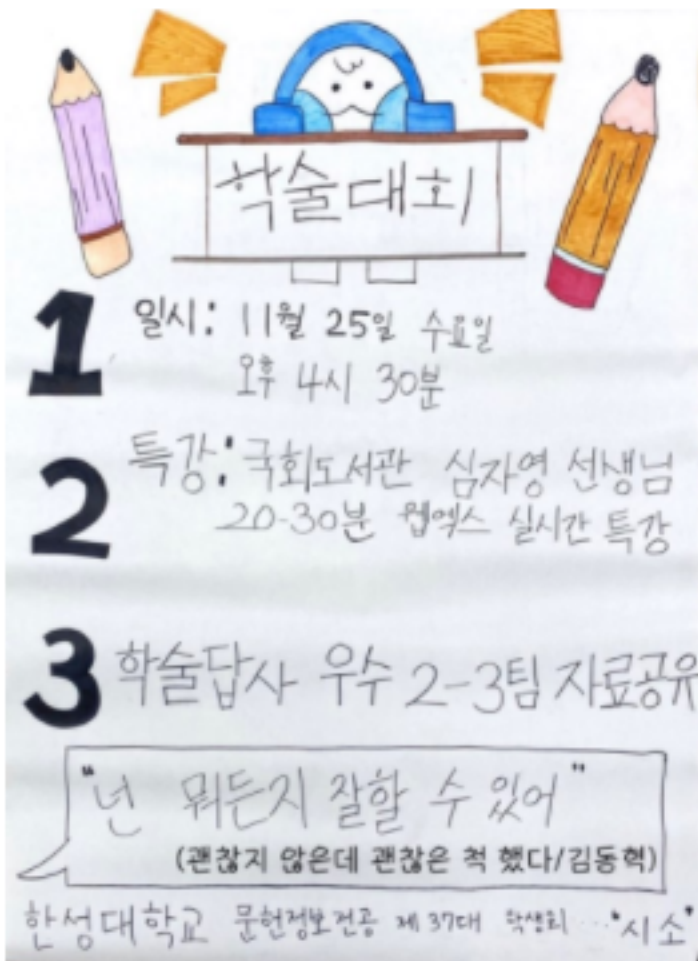
내년에는 제발 코로나가 종식되어 활발한 학생회 활동이 가능했으면 바란다.



# 학생회 소식

## 20년도 온라인 학술대회 & 문정인의 밤

기사 / 편집 : 이지희



기존에는 학과에서 진행하는 학술대회와 학생회가 주도하는 문정인의 밤 행사는 같은 날에 DLC 에서 진행했었다.

하지만, 선거일정에 따라 문정인의 밤을 진행할 학생회 임원들의 부재 등의 이유로 2020년의 학술대회와 문정인의 밤은 일주일의 간격을 두고 진행되었다.

11월 25일 수요일 오후 4시 30분부터 웹엑스 실시간으로 학술대회가 진행되었다.

학술대회의 개요는 졸업생 인터뷰 영상 시청, 실시간 특강, 재학생 소규모 답사 후기 영상 시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한성대학교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하신 선배님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시간

**궁금해요, 선배님!**



사전에 학생회 SNS를 통해 한성대학교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하셔서 다양한 관종의 도서관 및 기록관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선배님들에게 궁금한 사항들을 접수받았다.

학우들의 이 질문들을 전달하여 선배님들이 인터뷰 영상을 제작해주셨고 이를 학술대회 시간에 시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리랑 도서관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98학번 신은주 선배님, 노원구 구립 불암도서관에서 관장으로 계시는 김성민 선배님, 한성대학교 학술정보관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05학번 최형규 선배님, 4.16 기억저장소의 12학번 이은욱 선배님, 시설관리공단에서 기록관리요원으로 근무하시는 10학번 한상혁 선배님, 해양경찰청 기록관리요원으로 근무하시는 02학번 차준호 선배님과 마지막으로 퓨처누리에서 근무하시는 07학번 박태진 선배님들이 인터뷰 영상을 제작하여 보내주셨다.

2020 문헌정보 전공 학술대회

HANSUNG  
UNIVERSITY

“**선배님의 영상 편지**”



선배님들의 영상을 보며, 다양한 관종의 도서관 및 기록관의 업무와 이 직업을 갖기 위해서 갖춰야 할 역량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또한 고양시 삼송도서관의 사서로 근무하고 계시는 12학번 이청수 선배님과 몇몇 학생회 임원들과 교수님이 사전에 화상채팅으로 인터뷰를 진행했었다. 이 인터뷰 내용의 하이라이트 부분을 편집한 영상도 학술대회에서 시청하였다.



이후에는 국회도서관이 주무관으로 근무하고 계시는 심자영 선생님께서 실시간으로 특강을 해주셨다. 이 심자영 선생님께서는 한성대학교 문헌정보학과 93학번이라고 하셨다.

심자영 선생님께서는 국회도서관의 다양한 특수업무와 AI 기술을 활용한 정보서비스 등에 대한 강연을 진행해주셨다. 새로운 분야와의 융합된 도서관 서비스 내용이 담긴 이 강연은 많은 학우들에게 유익하고 흥미로운 정보를 제공해주는 기회가 되었다.

2020 문헌정보 전공 학술대회

HANSUNG UNIVERSITY

“ 실시간 특강: 국회도서관 심자영 주무관 ”  
 <코로나19에도 국회도서관>





이후에는 재학생 소규모 답사 발표영상을 시청하였다.

올해 코로나로 인해 학과생들과 교수님들이 다함께 한 지역을 방문하여 그 곳의 도서관 및 기록관을 탐방하고 알아가는 답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

따라서 4~5명으로 이루어진 재학생 소모임을 결성하여, 지도교수님 한 분과 체험하고 싶은 기관의 답사를 진행하였다. 이렇게 답사를 진행했던 학생들이 답사 내용을 간단한 영상으로 제작하여 이를 학술대회에서 시청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답사에 참여하지 못했던 학우들도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은뜨락 도서관의 답사를 진행한 도탐도탐 팀과 서울기록원 답사를 진행했던 기획부가즈아 팀의 두 영상을 시청하였다.

두 영상 모두 도서관과 기록관의 다양한 모습과 답사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서 간접적으로 답사를 다녀온 듯한 느낌이 들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한 학술대회는 실시간으로 약 6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여 많은 호응을 얻으며 마무리 되었다.

학술대회에 참여한 후기 작성 게시판에는 졸업하신 선배님들의 인터뷰 영상, 실시간 특강, 재학생 답사 영상 등 정말 다양하고 흥미로웠다는 내용이 가득이다.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아쉬웠지만, 기존의 학술대회보다 더 유익한 정보들과 내용들로 구성된 것 같아서 참여하기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 2020년 온라인 문정인의 밤



2020년 문정인의 밤은 학술대회 일주일 뒤인 12월 2일 수요일 오후 4시 30분에 웹엑스 실시간으로 진행되었다.



행사의 구성은 다음과 같았다.

학생회가 학기 초에 제작했던 트랙설명영상 시청, 20년도 학생회 집부소개 및 집부장들의 소감 한 마디, 회장단 공약이행결과 발표, 회계발표, 레크레이션, 21년도 학생회 소개 및 집부장 소개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레크레이션 시간에는 20년도 트랙장으로 일해준 이재성 학우와 최민수 학우가 자료를 준비하여 진행해주었다.

사진의 일부만 보고 알아맞추기, 글자조합하여 알아맞추기 등 정말 흥미로운 레크레이션들로 행사에 참여해준 학우들의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정답을 놀라울 정도로 잘 맞히는 학우들이 많아 준비했던 사은품을 나눠서 모두에게 증정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후 내년의 문헌정보전공 학생회를 이끌 학생회 회장단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후에는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학우, 내년의 학생회가 뽑은 학우들에게 소정의 상품을 보내주었다.

이렇게 2020년의 처음이자 마지막인 학생회 행사는 문제없이 원활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 코로나로 인해 마지막까지 온라인으로 학우들을 만나게 되어 아쉬웠지만, 적극적으로 행사에 참여해준 많은 학우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 4

## 기획기사

- 기획부 기획기사 -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 실감 영상관 방문기
- 도활부 기획기사 - 달아버린 도서관
- 문화부 기획기사 - 학교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생활
- 홍보부 기획기사 - 한성인에게만 알려주는 맛집지도
- 코로나야 , 우리가 봐줄테니까 우리의 2020년 돌려줘



# 국립중앙도서관

## 디지털 실감 영상관 방문기

기획기사

기사 : 기획부 / 편집 : 이지희

### 코로나 19로 인한 문화시설의 중단과 새로운 관람 문화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된 2020년 3월 이후, 실내에 인구가 밀집되어 거리두기에 어려움이 있는 도서관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시설들은 잠정 휴관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향유하던 문화생활은 전면 중단되었고, 사람들의 상실감은 커져만 갔다.

이후 7월을 기점으로 정부와 국민들의 노력으로 코로나의 확산세가 점차 완화되어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조정 되었다. 이에 공공시설들은 엄격한 방역수칙 하에 하나 둘 재개관하기 시작했다.

마스크 필수 착용은 물론이고 도서관은 출입 시 명부 작성과 손 소독, 좌석 거리두기와 책 소독을 통해 방역에 힘쓰고 있다. 영화관은 명부 작성, 체온 측정을 비롯해 좌우 한 좌석씩 띄어 앉기 등을 방침으로 코로나 19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코로나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다녀온 전시들 중 하나를 소개하려고 한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디지털 실감 전시를 새로 진행해 도활부 부장, 차장인 도원이와 주진이와 함께 방문했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은 예약제로 제한적으로 개방하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https://www.museum.go.kr/site/main/home>)에 방문하면 바로 예약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다. 날짜와 시간대, 방문 인원을 설정한 뒤 예약을 진행하면 된다.

우리가 방문한 날은 평일이기도 했고, 코로나의 영향도 있어서인지 매우 한산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입장 후에는 손 소독과 체온 측정 절차를 거쳤고, 당연히 마스크는 필수로 착용해야 한다.

## 국립중앙박물관의 디지털 실감 영상관 탐방

실감 영상관에서는 요일마다 다른 주제의 영상을 상연하는데, 우리가 방문한 화요일에는 <꿈을 담은 서재, 책가도>, <금강산에 오르다>, 그리고 <왕의 행차, 백성과 함께하다>를 감상할 수 있었다.

영상관에 입장하니, 무척 커다란 방의 정면과 양쪽 벽면이 거대한 스크린으로 이루어져있었고, 천장의 빔으로 영상이 재생되어 무척 압도되는 느낌을 받았다.

각 주제별로 약 5분 정도 되는 영상이 반복해서 상영되었는데, 영상미가 무척 아름다워 사진도 많이 찍었는데 특히 서로 찍어준 사진이 예쁘게 나와 만족했다.









또한 해외여행이 거의 사라져버린 상황에 알맞게 여권과 비행기표를 컨셉으로 한 이벤트도 인상깊었다.

인스타그램에 실감 영상관에서 촬영한 사진과 특정 해시태그로 게시물을 업로드하면 도장을 받을 수 있는 여권과, 실감 영상관에 대한 안내를 해주는 비행기 표를 받을 수 있다.

우리는 다른 실감 영상관을 돌아다니며 도장 5개를 받아 실감 영상관 기념품인 배지를 받았다. 그 외에도 다양한 미니게임이나 VR체험, 이벤트가 준비되어있으며, 여러 흥미로운 기획전도 진행중이다.

우리는 아쉽게도 시간이 부족해 디지털 실감 영상관을 위주로 관람했다.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전시도 진행중이니 실제로 방문하지 않더라도 전시를 즐길 수 있다.



# 코로나19로 문을 닫은 도서관, 그리고 사서

기획기사

- 돌리도서관 김혜영 사서와 함께

기사 : 도활부 / 편집 : 이지희



##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상황에 대한 우리의 궁금증

만남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도서관은 만나지 말아야 하는 지금 시국에 큰 위기를 맞았다. 거의 대부분의 도서관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언제든지 모일 수 있는 장소인 만큼 장기적인 휴관을 실시했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도서관을 이끌어가는 사서가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궁금해지기 마련이다. 때문에 현재 돌리뮤지엄 내 돌리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혜영 사서를 만나보았다.



## 이용자 없는 도서관? 사서의 심정은?

도서관과 맞닿은 학문을 공부하는 예비사서인 우리는 무엇보다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장기 휴관을 몸소 겪고 있는 현장 사서들의 심정이 가장 궁금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서관의 장기휴관에 대한 심정을 묻는 질문에 김혜영 사서는

“도서관은 1년간 사용할 예산과 예산이 책정된 프로그램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처음 휴관했을 때에는 한 달 정도 미뤄 실행하면 되겠지 생각하였지만 휴관이 장기화 되며 기존에 계획된 프로그램의 구성을 온라인으로 변형하는 등 다시 계획을 작성해야 했어요. 무척 힘들었습니다. 또한 도서관에서 봉사하는 봉사자들, 도서관에서 활동하는 동아리원들에게 휴관이 길어지며 연락을 드리는 일도 늘어나 운영을 전제로 하는 도서관의 입장에서는 송구한 마음이 들었어요.”라며 갑자기 변화한 상황에 대한 대처를 해야 했을 때의 힘듦과 당황스러움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피해를 봐야 하는 도서관과 관련된 봉사자, 이용자들에게 송구함을 느꼈다고 답변했다.

도서관은 휴관 중이지만 사서는 휴식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래 업무를 정상적으로 실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서들은 주로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 궁금해진다.

이에 김혜영 사서는 “스마트도서관에서는 휴관중에도 상호대차 업무를 하였기 때문에 책을 보내고, 받고, 소독하는 등의 업무는 계속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계획 중이었던 프로그램도 온라인으로 전환하기 위해 새롭게 강사를 섭외하고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편집하는 등의 추가 업무가 생성되었습니다. 휴관하였지만 교육을 받거나, 내년도 예산을 짜거나 등등 매년 하던 업무들은 지속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도서관에 오지 않아도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도서관 업무를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갑자기 변화한 상황에 적응하기 위한 추가업무를 적극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추가적으로 ‘그러한 업무에 대하여 대응하기 힘들었던 업무나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대한 질문에

“사서가 영상촬영과 편집을 해야 하는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금번 도봉구 책축제가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도서관 홍보영상과 추천도서 영상을 제작해야 했고, 그 외 사이사이 코너에 각 도서관에서 작성하고 보내야 하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오프라인이라면 기획회의와 당일 부스운영, 추후 보완회의 등으로 종료될 일이었지만 금번 온라인 책축제는 온전히 영상제작에만 매달려야 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해 보지 않은 일이라 더 어렵고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라는 답변으로 이전에는 없었던 영상편집 업무를 해내야 했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했다.

업무 관련 마지막 질문으로 ‘코로나 사태를 잘 대응하기 위한 사서의 역량’에 대한 질문에도 김혜영 사서는 앞에서 언급했던 영상편집을 무척이나 강조했다.

또한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등 도서관이 점점 더 커뮤니티적인 공간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자신만의 특기가 하나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수서와 정리, 운영 등 기본적인 능력은 탑재해야겠죠?” 라며 기본적인 능력과 더불어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특기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도서관 현장이 지각변동 하는 만큼 학업에 몰두하고 있는 학생들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김혜영 사서는 도서관을 바라보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도서관이 다양한 활동을 해야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여기서 사서의 역량이 발휘된다고 설명했다.

도서관에서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에는 '기획력'이 무기가 될 것이고 강사를 섭외할 때는 '인맥', 동아리원들과 의견을 조율할 때에는 '친화력'이 무기가 된다는 예시를 들어주며

“이러한 역량을 쌓기 위해서는 역시 경험을 많이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배우며 만난 사람들, 앞으로 만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쌓는다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사서 개개인의 자산이 될 거예요. 좋은 곳에 많이 다니고, 사람들을 만나 많은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따뜻한 조언을 건넸다.

## 도서관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 열려있습니다



실제로 오랫동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물리적인 문은 닫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를 위해 변화하고 추진한 많은 노력들로 하여금 도서관은 언제나 활짝 열려있었다는 생각이 든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적응하고 추진할 열정을 가진 사서들이라면 이 위기를 수월하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 위기를 딛고 도서관계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 도서관은 언제나 여기 있고 항상 열려있다. 그러므로 사서는 언제나 어떠한 모습이던지 도서관과 함께하며 이용자들을 위한 문을 활짝 열어줄 것이다.





기획기사

# 학교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생활

기사 : 문화부 / 편집 : 이지희



## 학술정보관

학술정보관에서는 어떠한 문화활동들을 할 수 있을까요?  
도서관을 그냥 책을 빌리는 공간일 뿐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잘 알려져 있지 않던 학술정보관의 숨은 정보에 대해 소개해보겠습니다.

## 학술정보관의 구성

우선 한성대학교의 학술정보관은 총 6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 5층의 인문·자연과학 자료실의 옆에 있는 상상커먼스는 국내외 연속간행물,  
학술지, 경력개발도서, 과제도서 등을 비치하고 있는 복합 학습 공간입니다.

음악이 흐르는 자유로운 분위기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공부, 팀플을 하거나  
잡지 등을 읽곤 합니다. 또한 6층인 멀티미디어정보실에서는 Blu-ray, DVD,  
VIDEO, CD, SLIDE 등의 다양한 비도서자료를 소장하고 있으며 열람도 가능합니다.

고전영화부터 최신 영화까지 비치되어 있으며 여럿이서 간다면 소파에서 편하게  
관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공강에 시간이 빈다면, 편하게 시간을 보낼 곳이  
필요하다면, 이곳 멀티미디어정보실에서 영화를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 학술정보관의 다양한 전자자료

한성대학교의 학술정보관은 전자 자료도 잘 구비되어 있습니다. 과제할 때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나 학술지들을 학술정보관 홈페이지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한국의 지식콘텐츠'에서는 한국 역사, 문학, 문화, 예술, 철학 등 11개 주제 분야의 212종 이상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고 '삼성디자인넷'은 삼성패션연구소가 콘텐츠를 제공하는 국내외 패션 및 디자인 분야 아트, 디자인, 트렌드, 컬렉션, 컨수머, 마켓, 리테일 등 70만 건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사이트들이 있으니 자료를 찾을 때 활용을 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듯합니다. e-journals 카테고리에서 학술지뿐만 아니라 잡지도 볼 수 있습니다.

'모아진'은 시사/경제, 컴퓨터/인터넷, 산업/기술/과학, 문화/예술/종교, 교육/외국어/문학, 교양/생활/패션, 취미/오락/여행/스포츠 등 200여 종 국내 잡지를 제공하는 사이트로 권호별, 기사별, 본문 내용별 검색 및 열람도 가능합니다. 잡지를 봐야 할 일이 생긴다면 이 사이트를 이용해보세요!

e-learning 카테고리에서 공무원이나 경찰직, 소방직, 교육학, 한국사능력시험 등 다양한 강의를 들을 수 있고 토익이나 토플뿐만 아니라 일어, 중국어, 불어 등 다양한 어학 강의를 듣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성대학교 전자도서관에서 핸드폰이나 노트북을 이용하여 간단히 전자책을 대출할 수도 있으니 책을 읽고 싶은데 도서관까지 나가기 귀찮다거나 코로나로 인한 집콕 생활 중에 무료하다 싶으면 한성대학교 전자도서관에서 책을 대출하여 독서를 즐기는 것은 어떨까요?



**HU** 한성대학교  
학술정보관  
HANSUNG LIBRARY



## 학술정보관의 상상독서 프로그램



상상독서는 우리 대학의 인재상 '공동선(善)을 추구하는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인문교양 및 독서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한성인의 자발적인 독서 습관 형성을 위한 독서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마일리지 제도를 기반으로, 독서활동에 참여한 한성인에게는 마일리지 적립, 비교과포인트 지급, 인증서 발급, 인센티브 지급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상독서 마일리지 프로그램에는 저자와의 만남, 독서클럽, 테마가 있는 독서아카데미, 도서 리뷰, 상상독서 문학기행이 있는데요.

그중에 상상독서 문학기행에 대해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상독서 문학기행은 문학작품 속의 배경 또는 저자와 관련된 다양한 장소를 직접 탐방하고 체험하며 작품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독서 프로그램입니다.

참여방법은 첫째, 학생들이 직접 팀(3~5명) 조직하여 주제 도서를 정하고 탐방 계획을 수립합니다. 둘째, 주제 도서에 대한 상상독서 홈페이지 내 '나의 리뷰'를 팀원 모두가 작성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상독서 문학기행 신청서 및 문학기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선발된 학생들에게는 1인당 10만 원의 장학금과 비교과 20P, 상상독서 마일리지 20M이 지급된다고 하네요.

친구들과 추억을 쌓으면서 장학금과 비교과 등을 얻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아주 유용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술정보관 홈페이지에는 더욱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 기사를 읽고 관심이 생긴 프로그램이 있다면 홈페이지를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알아가길 바랍니다



혹시 코로나 블루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코로나 블루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우울감을 호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체적 증상에 대한 불안감, 그러한 불안으로 인한 불면증, 우울함, 답답함 등 이전보다 더 우울해하고 불안해합니다.



사람과의 교류로 해결할 수 있지만 나가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아니다 보니 평소보다 증상을 극복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학생상담센터를 이용하는 것은 어떨까요?

## 학생상담센터 상담서비스

학생상담센터는 개인상담, 집단상담, 진로상담 등을 통해서 한성대인들이 자신의 문제와 고민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올해 3월부터 카카오톡 상담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 학생 여러분들이 좀 더 수월하게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

1:1로 이루어지는 개인상담은 1회에 50분 가량 진행되며, 상담횟수는 12회를 기준으로 상담자와 내담자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비교과 포인트 또한 지급되는데 1회에 5포인트가 지급됩니다. 주제는 내담자가 원하는 어떤 주제든 다룰 수 있으며 한성대학교 학생과 교직원에게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집단상담은 약 10명 내외의 참가자들과 1-2명의 전문상담자로 모임이 진행되며, 학기 중에 실시되는 집단상담은 학기 초에, 방학 중에 실시되는 집단상담은 학기 말에 공지됩니다. 학생상담센터 홈페이지, 한성대학교 홈페이지, 비교과 공지 게시판 등에 홍보물이 게시되어 선착순으로 접수가 이루어집니다.



그 밖에도 학생상담센터에서는 한성포래상담, 각종 심리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래관 B1층 B112호에 위치하고 있으며,

학기 중에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  
방학 중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하는데  
12시부터 1시까지는 점심시간입니다.

신청은 직접 학생상담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과 인터넷으로 상담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를 작성하여 학생상담센터 홈페이지에 비밀글로 게시하면  
접수완료가 됩니다.

카카오톡 1:1 채팅을 이용한다면 좀 더 손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상담센터를 이용해서 학생 여러분들이 코로나 블루 같은 우울감을 떨쳐버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기사

# 한성인에게만 알려주는 맛집 지도

기사 : 홍보부 / 편집: 이지희



학기 중 학생들은 너무나도 지쳐있다.

수업과 과제 비교과프로그램이나 개인 자격증 까지 해야할 일이 너무나도 많다.  
그런 대학생들에게 빛이자 희망인 것이 바로 방학이라고 생각한다.

코로나 이전의 대학생들은 방학중에 해외여행을 떠나거나 즐거운 레저를 즐기면서  
시간을 보내곤 했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의 학생들은 모임을 자제하고 서로 거리를  
두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이런 슬픈 시기를 극복하고 즐거움을 잃지 않고 싶다는 마음에서 한성인들에게 전  
국 특별 맛집을 공개한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이 힘든 시기를 극복해보기로..!)

## 홍대 역전상회 - 곱도리탕



한국인에게 딱 맞는 칼칼한 국물과  
살 속 까지 배어있는 양념이 일품!  
떡과 당면사리도 너무나 졸깃 졸깃하고  
술집이지만 밥만 먹고 가도 OK!

위치: 서울 마포구 잔다리로 14 2층

## 성신여대 돈암동찌개 - 돼지김치찌개



정말 술 한잔하기 좋은 곳.

시끌벅적한 분위기와 강통 책상은  
술을 불러일으킴.

돼지김치찌개와 닭도리탕이 가장 맛있음.



가격도 2인 기준 2만원을 넘지 않기에 가성비가 좋음.  
싼 가격이지만 맛은 너무 좋아 연속으로 4일동안 간 적도 있음.  
24시간 운영한다는게 특징. 지역 맛집이라 항상 사람이  
새벽시간을 제외하고 사람이 많다는 단점이 있음.  
성신여대에서 술집을 찾는다면 꼭 한번 가보는 것을 추천.

위치: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20나길 34



## 성신여대 동선식당 - 치즈갈비찜



치즈가 정말 잘 늘어나고 고기도 가위로 다 잘라서 먹기 좋게 손질해 주심!  
맵기도 조절 가능하고 보통맛은 매운걸 잘 못먹는 사람도 먹을 수 있음  
p.s 같이 나오는 메밀전과 함께 먹으면 ...짱!

위치: 서울 성북구 보문로 30라길 9

## 노원 봉대박 스파게티 - 봉골레 파스타



스파게티, 필라프, 피자를 파는 이탈리아 식당입니다.  
봉골레 파스타가 맛있는 집이에요.  
서영 에디터가 먹어본 봉골레 파스타 중에 가장 맛있었어요>\_<



매운맛 조절도 가능해서 맵짤이인 에디터는 항상 덜맵게 만들어 달라고 주문한답니다^^,,  
에디터는 2인 3메뉴가 기본인 사람인데 봉대박은 양이 많아서 2명이 2메뉴로 충분했어요! 맛도 양도 혜자인 봉대박 스파게티 추천합니다.

위치: 서울 노원구 노해로81길



## 노원시즌 - 초코케이크



인스타 감성 낭낭한 디저트 카페입니다.

카페에서 직접 만드는 수제 케이크가 넘 예쁜 곳이에요❤️

2인 기준 케이크 1개 음료 2잔 시키시면 즐거운 디저트 타임~!



서영 에디터는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얼그레이티, 초코케이크를 시켰어요.  
초코케이크가 적당히 달아 맛있었구 식감이 끈적이지 않아 신기했답니다.

너무 맛있게 순삭했어요!

카페 내부 인테리어는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으로 깔끔하답니다.

액자나 그림 등 작은 소품들이 어우러져서  
요새 인스타 감성에 딱 맞는 카페였어요👍

위치: 서울 노원구 상계로3길

## 구리 오빠 츠러스 언니 커피 - 츠러스



달달한거 팽길때 먹으면 짱짱!  
꼭 츠러스랑 아이스크림이 같이 있는  
메뉴들중에 골라드세요🍷!!

위치: 경기 구리시 안골로103번길 45

## 서울시 강남구/청담돈까스



별점 ★★★★★

이름만큼 맛있는 돈까스집! 돈가스의 정석을 보고 싶다?  
청담돈가스로! 사이드로 나오는 메밀소바도 시원하고 맛있어요!  
정식메뉴는 취향에 따라 먹어봄직해요 고등어조림도 있고  
양념게장에 마요덮밥도 있어요 전메뉴가 음식의 정석에 맞춘 기분?  
기분의 탄탄함을 느끼고 싶다면 청담돈까스!



## 서울 영등포구/무목



문래창작촌에 위치한 무목은  
오믈렛과 파스타, 치킨샐러드,  
수제비 홍합탕, 와인 등을  
판매하는 양식집입니다~

저는 바질치즈 오믈렛과  
명란 올리브 파스타를 먹었는데,  
가격이 2만원밖에 안나왔습니다!

오믈렛은 적절하게 익은 달걀이 대박이고, 명란 올리브 파스타는 감바스 느낌의  
고소한 맛과 고추가 함께 들어가서 알싸한 향 덕분에 풍미가  
완전 기가 막혔습니다. 문래창작촌에서 지인과 감성 돌는 사진 찍고  
출출할 때쯤 무목에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ㅎ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131길 18 문래역 7번출구에서 396m

## 부산 해운대구/ 일식당 해목

별점 ★★★★★

연어덮밥이 정말정말 맛있어요 ㅌㅌ 인생 덮밥집!

맛도 있고 내부도 시원시원하고

해운대 놀러가면 꼭 한번 가보기를 추천!!

하지만 별점 하나를 뺀 이유는

맛있는 만큼 비싸서..

여러 명이 가서 메뉴 골고루 시키길 추천합니다ㅎ



## 경기도 하남시/동대문 야채곱창



별점 ★★★★★

여기는 메뉴가 막창소금구이랑, 막  
창양념구이 두 가지 밖에 없어요  
원래 찐 맛집은 메뉴가 별로 없는거  
아시죠?!

만약 하남에서 사는데 곱창이 먹고싶다하면 꼭꼭 가보기를 추천합니다  
식당이 좀 오래 됐지만(별점 4개인 이유)  
맛은 정말정말 보장할 수 있는 하남 맛집입니다!  
막창소금구이가 정말 맛있어요 (소근소근)

## 서울시 마포구/ 쌀국수 포가레



별점 ★★★★★

인생 쌀국수 집을 찾았어요..

가격도 거의 만원 왔다갔다 하는 좋은 가격  
전 닭쌀국수 시켜서 먹었는데 진짜 맛있었어요 ㄷ

서치해보니까 다른 쌀국수도 다 맛있대요!  
쌀국수 안 좋아하는 저도 맛있어서 다 먹었습니다

ㅎㅎ





기획기사

# 코로나야, 우리가 봐줄테니까 우리의 2020년 돌려줘

- 20학번 친구들의 인터뷰

기사 : 이지희 / 편집: 이지희

20학번 이연재 친구 (20년도 기획부 부원)



Q. 간단하게 본인소개 부탁드립니다

A. 크리에이티브 인문학부 20학번 이연재입니다!

Q. 올해 가장 기대했던 학생회 활동이 있나요 ?

A. MT와 LT 사전답사가 가장 궁금했습니다.

Q. 새내기 캠퍼스 라이프 중에서 가장 기대되었던 것이 있나요 ?

A. 다양한 친구들을 사귀고 노는 게 가장 기대됐어요.

Q. 올해 코로나로 인해 학교생활을 못하였는데, 대체로 어떻게 지냈나요 ?

A. 주로 집에만 있었고, 이번에 알바를 시작해서 이틀만 외출하고 있습니다.

Q. 올해 가장 힘들었던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A. 외출할 때 마스크를 끼는 게 불편했고 사람 많은 곳에 가면 불안해지는 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Q. 내년엔 코로나가 좀 잠식되어 학교생활을 즐길 수 있다면  
가장 하고 싶은 것은 뭔가요?

A. 친구들이랑 학교가서 수업듣고 학식먹기..



Q. 올해 코로나로 학교생활을 잘 못해서 한성대생 꿀팁을 잘 모르는데,  
알고 싶은 꿀팁이 있나요? 알려드릴게요!

A. 학식 인기 메뉴가 궁금해요!

A. 학교에서 공부하기 가장 좋은 장소는 어디인가요?

+ 학식 인기메뉴 5개를 감히 소개해드리자면,

1. 우삼겹된장찌개
2. 육회비빔밥
3. 삼겹살강된장비빔밥
4. 소시지 오므라이스
5. 소금구이덮밥

( 그 밖에도 맛있는 메뉴가 정말 많아요 )

+ 학교에서 공부하기 가장 좋은 장소 3곳을 추천해드리자면,

1. 새로 생긴 학술정보관 집중, 창의열람실
2. 잔잔한 음악이 흐르는 학술정보관 5층 상상커먼스
3. 토론 등의 팀플을 할 겨우에는 상상관 지하 2층

## 20학번 이예진 친구 (20년도 도활부 부원)



Q. 간단하게 본인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크리에이티브 인문학부 20학번 이예진입니다.  
문헌정보학과 학생회 도활부 활동을 하고있습니다.

Q. 올해 가장 기대했던 학생회 활동이 있나요 ?

A. 도활부의 특성에 맞게 은뜨락 도서관 1주년 기념 행사 활동이  
가장 기대가 되었습니다. 선배님들, 부원들과 함께 준비하면서 내내  
재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Q. 새내기 캠퍼스 라이프 중에서 가장 기대되었던 것이 있나요 ?

A. 새내기만 갈 수 있는 새터를 가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  
가장 기대되었습니다. 또 각자 취미에 맞게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동아리 활동도 기대 되었던 것 같습니다.

Q. 올해 코로나로 인해 학교생활을 못하였는데, 대체로 어떻게 지냈나요 ?

A. 저는 정말 집에만 있었습니다. ㅎㅎ  
주로 실시간 온라인 강의를 듣고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취미를  
찾아서 했습니다. 가끔 학생회 활동을 할 때 나가고 친구와 약속도  
서로의 집으로 가서 시간을 보낼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Q. 올해 가장 힘들었던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A. 아무래도 새로운 사람들과 환경을 접하는 기회가 사라졌다는  
아쉬움이 컸던 것 같습니다. 또 대학에 와서 기대했던 새내기만 쌓을 수 있는  
추억들이 사라졌다는 것도 너무 아쉬웠습니다.

## 20학번 이예진 친구 (20년도 도활부 부원)



Q. 내년에 코로나가 좀 잠식되어 학교생활을 즐길 수 있다면 가장 하고 싶은 것은 뭔가요?

A. 특별한 활동들도 기대되지만 친구들과 실제로 만나 같이 한 교실에서 수업 받고, 끝나면 학식 먹는 단순한 대학생활이 가장 하고 싶습니다.

Q. 올해 코로나로 학교생활을 잘 못해서 한성대생 꿀팁을 잘 모르는데, 알고 싶은 꿀팁이 있나요? 알려드릴게요!

A. 아직 학식을 먹어보지 않아서 학식이 정말 기대되는데 친구와 함께 먹을 때 좋은 학식 꿀조합과 운영시간을 알고싶습니다.

+ 보통 학식을 나눠먹지는 않아서 유명한 꿀조합은 따로 없네요,,ㅎ  
그렇지만, 국물떡볶이, 소떡소떡, 치즈볼 등의 간식도  
판매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주고 싶네요 !!

+ 학식당 운영시간은 주로 10시에서 16:30분으로 알고있어요!  
16시~16:30분은 브레이크 타임으로 운영한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학식당 운영시간은 변동이 많이 되어서  
에브리타임, 한담 등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학식당 메뉴와 운영시간을 확인하고 이용하는게 좋을 것 같네요!!



## 20학번 조유나 친구 (20년도 문화부 부원)



Q. 간단하게 본인소개 부탁드립니다

A. 크리에이티브 인문학부 20학번 조유나입니다.

Q. 올해 가장 기대했던 학생회 활동이 있나요 ?

A. 학생회 사람들과 회의를 진행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싶었습니다.

Q. 새내기 캠퍼스 라이프 중에서 가장 기대되었던 것이 있나요 ?

A. 가장 기대되었던 캠퍼스 라이프는 '대면 수업이 끝난 뒤 친구들과 헤어지기 아쉬워서 맛있는 것을 먹으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Q. 올해 코로나로 인해 학교생활을 못하였는데, 대체로 어떻게 지냈나요 ?

A. 새내기인데 학교 갈 일이 없다는 것이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한성대학교 또래상담자분이 근로장학생을 하는 것을 추천해주셔서  
2학기에는 주로 근로를 하였습니다!  
덕분에 학식도 많이 먹고 좋은 선배님들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Q. 올해 가장 힘들었던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A. 3월에 학교정보나 수강신청 등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많아서 힘들었지만,  
학생회에서 제공한 피피티로 자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 나이를 먹을수록 부모님과 떨어져 있는 시간이 많아진다고 하는데  
이번 기회에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 힘들기보다는 오히려 좋았습니다.

## 20학번 조유나 친구 (20년도 문화부 부원)



Q. 내년에 코로나가 좀 잠식되어 학교생활을 즐길 수 있다면  
가장 하고 싶은 것은 뭔가요?

A. 대면 수업을 가장 하고 싶습니다.

한 학기, 두 학기 동안 교수님의 얼굴을 화면을 통해서만 볼 수 있다는 것이  
아쉬웠고, 교수님들께서 우리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인터뷰에 참여해주신 20학번 친구들 정말 감사합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가 종식되어 여러분들이 활발한 학교생활을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



# 5

## 집부별 활동소식

- 기획부 활동소식
- 도서활동부 활동소식
- 문화부 활동소식
- 홍보부 활동소식

# “ 기획부 활동소식 ”

## 종강 이벤트 - 나 홀로 종강파티 기획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 100% 온라인 수업으로 이루어졌던 20년도 1학기, 새학기에 다양한 학교행사들이 취소가 되었다.

따라서 기획부는 나 홀로 종강파티라는 학과 이벤트를 기획하였다.

### 나 홀로 종강파티

코로나로 인해 개강 파티도 못하고 종강 파티도 못하게 되어 아쉬운 마음에 '시소'가 간단한 종강 이벤트를 준비해보았습니다!  
외출을 삼가고 집에만 있는 요즘,  
여러분들의 혼술 안주 및 야식 요리를 소개해주세요.

**일정**

신청 기간: 7월 20일 ~ 7월 26일  
심사 및 투표 기간: 7월 27일 ~ 8월 2일  
우승자 발표날: 8월 3일




## 이 내용들을 반드시 적어주세요

**신청자 정보**

신청자의 이름 / 학번 / 전공 및 트랙  
ex. 문정미 / 20\*\*\*\*(숫자 7자리) / 크리에이티브 인문학부

**나만의 요리 소개**

나만의 혼술안주 / 야식요리 이름  
 요리에 대한 간략한 소개  
(예: 소주와 함께 먹으면 맛있어요)



요리 재료

요리 만드는 방법

완성요리 사진



이전처럼 다함께 술집에서 즐기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서, 나만의 혼술 안주 및 야식의 레시피를 소개하는 것이다.

내가 소개하는 나만의 혼술안주 및 야식요리의 이름과 간략한 소개, 그리고 요리재료, 요리를 만드는 방법, 완성된 요리의 사진을 반드시 첨부하게 요청하였다.

이벤트 참여자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고 레시피와 완성사진만을 토대로 심사를 진행하였다.

심사항목은

참여자가 한성대학교 문헌정보전공 학생회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팔로우 하고 있는지 (각각 5점)  
 참신함(30점), 주제 적합성(20점), 실용성(20점) 으로 구성되었다.

**심사 방법**

모든 심사 및 투표는 블라인드 테스트로 진행합니다.

(1) 블라인드 학우 테스트 (20점)

신청된 레시피와 요리를 페이스북 게시물의 투표로 진행합니다.  
\*'좋아요' 투표에 참여한 주신 학우분들도 추천으로 한 번에게 이니스크림 쿠폰을 드립니다!

(2) 블라인드 심사

심사위원으로는 '시소' 학생회 모든 구성원들이 신청자를 알지 못한 채로 아래의 요소들을 고려하여 심사 할 예정입니다.

페이스북 친구, 인스타그램 팔로우 (각각 5점)

참신함 (30점)

주제 적합성 (20점)

실용성 (20점)



우승자 상품은  
1등 에어프라이어

2등 BBQ 황금올리브 치킨 + 콜라 1.25 L 기프티콘

3등 카카오프렌즈 댄스 소주잔 세트 4p로

정말 빵빵한 상품들이 준비되었다.

나만의 요리 레시피는 서지영(19), 이슬기(18), 이민경(19), 조유나(20)로 총 4명의 학우들이 이벤트에 참여해주었다.

소개된 음식은 마약옥수수전, 참치카나페, 갈릭크림엽기떡볶이, 콘치즈이다.

이벤트 진행 당시에는 레시피를 작성해준 학우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은 채로 학과 sns 에 소개되었다.

# 나만의 레시피 소개



## 신청자 1번 마약 옥수수전



요즘같은 장마철, 단편한 맛과 푹푹 터지는 식감으로 맥주와 함께 즐기기 좋은 나만의 혼술안주다. 배불러도 끊임없이 들어가고 자꾸 생각나는 맛이라 계속 찾게 되는 매력이 있다.

신청자 1번, 이슬기(18) 학우는 마약옥수수전 레시피를 소개해주었다. 맥주와 함께 즐기기 좋은 혼술안주인 것 같다.



## 신청자 1번 마약 옥수수전 필요한 재료

옥수수캔 1캔 (340g), 부침가루 약 7큰술, 물 종이컵 1/4 (45ml), 식용유, 연유, 피마산 치즈가루



## 신청자 1번 마약 옥수수전 만드는 법

- (1) 통조림 옥수수를 채에 받쳐 국물은 버리고 옥수수 알갱이만 준비해 놓는다.
  - (2) 볼에 물기를 뺀 통조림 옥수수, 물, 부침가루를 넣는다.
  - (3) 제로볼 손가락으로 골고루 섞어준다.
  - (4)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불을 올려 달군 다음 옥수수 반죽을 얇게 올린다.
  - (5) 손가락으로 반죽 모양을 잡아가며 앞뒤로 노릇노릇하게 굽는다.
  - (6) 바삭하게 구워진 옥수수전을 그릇에 옮겨 연유와 피마산치즈 가루를 원하는 만큼 마구 뿌린다.
- + 추가로 고춧가루를 조금 뿌려도 맛있다.

통조림 옥수수를 전으로 만들어서 먹는 색다른 레시피를 소개해주었다.

재료도 비교적 간단하고, 만들기도 어렵지 않아

누구나 따라하기 쉬울 것 같다.

그리고 기호에 따라 다양한 소스를 뿌려서 먹을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신청자 2번

## 참치 카나페



와인이랑 먹으면 특히 잘 어울리고  
집에 크래커 종류의 과자와 참치캔과 마요네즈를 집에  
쟁여두기만 하면 언제든지 간단하게 해먹을 수 있는 안주입니다!  
저는 비주일을 위해 맛살도 올려주었습니다!



신청자 2번, 조유나(20) 학우는  
참치 카나페 레시피를 소개해주었다.  
와인 안주로 먹으면  
더 잘어울린다는 꿀팁을 알려주었다.



신청자 2번

## 참치 카나페 필요한 재료



크래커 과자(에스, 참크오키, 아메, 아재크오키, 리오 등)  
마요네즈, 참치통조림  
+ 기호에 따라 계살 등 다양한 토핑



신청자 2번

## 참치 카나페 만드는 법



(1) 통조림 참치의 기름을  
빼고 마요네즈와 섞어줍니다.

(2) 마요네즈와 섞은 참치를  
크래커 위에 적당히 올립니다.

(3) 기호에 따라 다양한  
토핑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크래커 과자는 기호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고  
사실상 마요네즈와 참치통조림만 있으면 만들 수 있는 간단한 안주이다.  
기호에 따라 계살 등의 다양한 토핑으로의 변신이 가능하다.  
레시피도 정말 간단하여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혼술안주인 것 같다.





신청자 3번

맵쌀이도 씹가능한🔥

갈릭크림 엽기떡볶이



엽떡을 시켜먹으면 양이 많아서  
남을 때가 많잖아요??  
그냥 데워먹기만 하면 너무 질려서  
저는 색다르게 조리해서 먹는 걸  
좋아해요♥

이 레시피는 매운걸 못 먹는 맵쌀이 친구들한테  
특히 추천합니다



신청자 3번, 이민경(19) 학우는  
갈릭크림 엽기떡볶이를 소개해주었다.  
시켜먹으면 양이 많아서 항상 남는  
엽떡을 색다르게 조리하여 먹는  
레시피이다.



신청자 3번

갈릭크림 엽기떡볶이

만드는 법

준비물

남은엽떡, 다진마늘, 생크림(또는 우유), 식용유



신청자 3번

갈릭크림 엽기떡볶이

만드는 법

1. 후라이팬에 식용유를 한 두숟가락 두른 뒤 약불에 둡니다
2. 잠시 후 다진 마늘을 적당히 넣고 아쿠아아쿠아 약불에 30초간 볶습니다 (잘못하면 마늘이 타기 때문에 조심해야 해요!)
3. 마늘이 살짝 노르스름한 색으로 변하면 먹을 만큼 엽떡을 넣습니다
4. 중간중간 계속 물을 넣어주면서 떡이 말랑해질때까지 볶아줍니다. 이때 불은 중불로 올립니다
5. 떡이 어느정도 익으면 생크림이나 우유를 적당히 넣고 졸입니다. 간을 보고 매우면 생크림이나 우유를 더 넣어줍니다
6. 적당한 농도가 되면 그곳에 담습니다. 완성입니다 ✨  
어린 술과 함께 먹어도 맛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맵조콤한 엽떡과 떡과의 조합이 짱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보세요~

남은 엽떡을 사용한다는 점이 매우 유용해보인다.

그리고 생크림, 우유 등을 더 넣어 매운 엽떡을

중화하여 매운 것을 잘 못먹는 사람들도 즐길 수 있는

레시피인 것 같아서 시도해보고 싶었다.



신청자 4번

### 콘치즈에 푹 빠정



콘치즈의 달달함과 양파의 아삭함 스편의 짭짤 후추의 강력한 맛  
마요네즈와 버터의 느끼함이 조화를 이루어 콘치즈에 푹빠정 🍷



신청자 4번, 서지영(19) 학우는  
콘치즈 레시피를 소개해주었다.  
옥수수 통조림을 활용한  
대표적인 안주인 콘치즈를 스편을  
추가하여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였다.



신청자 4번

### 콘치즈에 푹 빠정

만드는 법



신청자 4번

### 콘치즈에 푹 빠정

만드는 법

1. 집에 있는 콘치즈에 물기를 뺀다
2. 양파를 잘게 썰어준다 (작은양파는 반개 큰양파는 4분의 1개)
3. 스편도 잘게 썰어준다
4. 뭉뭉 콘치즈와 양파 스편을 한곳에 모아준다.
5. 그 다음 마요네즈를 크게 한바퀴 둘러주고  
살랑도 아빠 한 숟가락 넣어주고  
그 다음 후추 가루를 뿌려주면 덜 느끼해져서 많이 먹을 수 있다
6. 잘 섞어준 후 후라이팬에 버터를 놓는다
7. 콘치즈를 버터에 볶아준다
8. 그 위에 치즈를 올린다
9. 자신이 좋아하는 맥주를 골라 같이 먹어주면 아주 환상적이다 🍷

조리과정을 정말 상세하게 정리하여 보내준 것이 인상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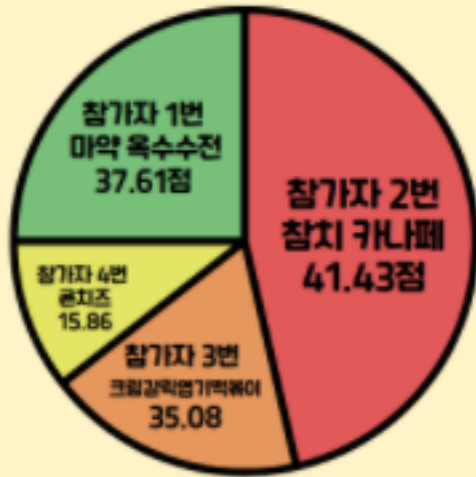
이미 대중적인 콘치즈에 스편을 추가하였다는 것이 특징이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고

스팸이 아니어도 기호에 따라 다양한 토핑을 추가할 수 있을 것 같다.



### 심사 및 투표 결과



### 우승자 발표

시소가 준비한 종강이벤트

축하합니다

- 1등 : 조유나 (참치 카나페)
- 2등 : 이슬기 (마약 옥수수전)
- 3등 : 이민경 (크림갈릭엽기떡볶이)
- 4등 : 서지영 (콘치즈)

심사 및 투표결과는

참치 카나페를 소개해준

조유나 학우가 41.43 점으로 1등을 차지하였다.

마약 옥수수전을 소개해준 이슬기 학우가 37.61점으로 2등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크림갈릭엽기떡볶이를 소개해준 이민경 학우가 3등을,

콘치즈를 소개해준 서지영 학우가 4등을 차지하였다.

다함께 만나서 종강파티를 즐길 수 없는 상황이 안타까웠다.

서로의 혼술안주 및 야식의 레시피를 공유하며

교류하는 기회가 마련되어 색다르고 흥미로웠다.

# 기획부 활동소식

## 2학기 기말고사 간식사업

1학기에는 코로나가 곧 종식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중간고사, 기말고사 간식사업을 미루어왔다.

하지만 대구 신천지 코로나, 이태원발 코로나 등 코로나는 종식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았다.



20년도 신입생들에게 학생회비를 걷는 것을 취소하고, 기존에 학생회비 18만원을 납부한 재학생을 대상으로 기말고사 간식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기존에 간식사업은 우촌관 208호에 위치해있는 학생회실에서 직접 배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었다.

하지만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면서 학교에서는 학생회실 등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다.

따라서 20년도 간식사업은 기프티콘 배부의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기말고사 간식사업 설문조사를 통해 학우들이 원하는 간식을 조사하였다.

# 기말고사 간식사업 설문조사

일정 11월 11일 ~ 11월 18일 오후 6시  
네이버 폼 주소 : <http://naver.me/x015Aczn>

**항목**

1. [맥도날드] 상하이 버거세트
2. [본도시락] 델리팬김치볶음밥
3. [써브웨이] 에그마요 15cm 쿠키세트
4. [이디야커피] 정말 고마워 세트  
(플레인베이글+아메리카노)

2020년 기말고사 간식사업으로 먹고 싶은 간식 골라주세요!



선호도 조사 항목으로는

맥도날드, 본도시락, 써브웨이, 이디야 커피가 있었다.

이 4개의 항목 중 써브웨이의 선호도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따라서 2학기 기말고사 간식사업은

써브웨이 에그마요 15cm + 쿠키 세트로 선정되었다.

간식: 써브웨이 에그마요 15cm + 쿠키세트  
일시: 12월 9일 오후 2시

12월 9일 오후 2시부터 간식신청  
네이버 폼을 통해 신청을 받은 뒤,  
11일에 써브웨이 기프티콘을 배부하여  
20년도 처음이자 마지막 간식사업을  
마무리하였다.

# “도활부 활동소식”

이색도서관 온라인 탐방  
한옥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청운 문학 도서관'



청운문학도서관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위치한 도서관으로  
종로구에서는 16번째로 설립되었습니다.

청운문학도서관은 다른 도서관들이 접근성 좋은 곳에 위치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북악산과 인왕산의 산세의 조용하고 인적 드문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도시와는 떨어진 조용한 도서관이죠.

청운문학도서관은 주변환경과 잘 어울리는 한옥으로 지어졌습니다.  
송례문 복원에 사용된 지붕기와와 같은 방식으로 제작된 수제기와를  
사용하고 돈의문 뉴타운 지역에서 철거된 한옥기와 3천여 장을  
재사용한 의미 있는 건축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옥 건축물의 특징을 살려 전통적인 분위기의  
매력적인 공간이라는 특징과 어울리도록 인근의 운동주 문학관,  
시인의 언덕 등과 함께 문학 인프라의 중심으로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청운문학도서관은  
문학 특성화 도서관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장서의 80%이상이 시, 소설, 수필 위주의 문학 서적이라고 하니  
문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찾아가보길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주민들에게 각종 독서모임 장소와 창작활동이  
가능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국내 문학작품 및 작가 중심의  
기획전시와 인문학 강연, 시 창작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도서활동부가 생각하는 청운문학도서관의 장점



마지막으로 도서활동부 부원들이 입을 모아 칭찬하는 청운문학도서관의 장점은 첫 번째로, 평균적인 도서관의 운영시간 보다는 늦은 시간인 밤 10시 까지 개방되어 있다는 부분입니다.

늦은 시간에 주변이 고요한 한옥에 앉아 노을이 지는 모습, 달빛이 물든 하늘을 바라보며 사색에 잠기는 기분을 느껴보고 싶지는 않으신가요? 생각만 해도 낭만적이고 힐링이 되는 장소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다시피

청운문학도서관은 운동주 문학관, 시인의 언덕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도서관을 들렀다가 잠깐 운동주의 자필과 서적을 감상할 수고 있고  
시간대별로 운동주 생애와 관련된 영상도 상영하고 있습니다.

도서관도 들리고 문화생활까지 하는 1석 2조의 코스로 추천합니다.

너무나도 시끄럽고 빠르게만 흘러가는 일상에 지치셨다면

잠시 도심을 떠나 고즈넉하고 편안한 청운문학도서관의 한옥에 앉아  
조용한 자연을 즐기며 시간을 보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청운문학도서관이 정신없이 흘러가는 여러분의 인생의 한 부분에서  
천천히 곱씹을 수 있는 좋은 기억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 이색도서관 온라인 탐방

### 도시·건축·사람, 그리고 시애틀 공공도서관

미국의  
시애틀 공공도서관은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중심가  
4번대로와 매디슨 거리에  
있는 중앙공공도서관입니다.



1980년대에 설립된 이 도서관은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4년 건축가 렘 콜하스의 설계 아래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된  
시애틀 공공도서관은 미국 건축협회로부터 건축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 시애틀 도서관이 건축으로 유명해진 이유

첫째로, 건물의 외벽은 전부 통유리로 되어있어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자연광을 최대한 살린 유리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안과 밖이 흰하게 보이는 이곳의 외관을 도서활동부 부원들은  
도시와 소통하겠다는 도서관의 비전을 표현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색깔을 활용한 건축 디자인입니다.

시애틀 도서관은 크기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동선을 예상하고 고려하여 공간에 형광색을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는 눈에 잘 띄는 형광빛 연두색이며, 엘리베이터 버튼 아래에는 각 층의 부가설명과 도서의 듀이십진분류표를 부착해놓기도 했습니다.

또한 휴식공간과 휴게의자 같은 가구에는 다홍색을 입혀 이용자의 눈에 쉽게 될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선형 서가입니다.

6층부터 9층까지 한 길로 연결되어 같은 분류의 책이 여러 층의 서가로 나뉘는 것을 방지하고 장애인들도 쉽게 책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돋보이는 건축설계입니다.

이렇게 이용자의 입장에서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 건축한 만큼 기회가 있다면 들려볼 만한 가치가 있는 도서관입니다.



## 시애틀 도서관의 특징

시애틀 도서관은 145만권의 장서와 각종 DVD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45만장이라는 숫자는 우리나라 시립도서관의 3배에 이르는 숫자인 만큼  
어마어마한 양의 정보를 소장하고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미리 책을 신청한 뒤 나중에 도서관을 방문하여

'Holds Pick Up' 코너에서 자신의 이름을 확인하고

책을 대출할 수 있는 도서대출 시스템이 대중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24시간 개방되어있는 반납함에 도서를 넣으면 컨베이너 벨트가

자동으로 서고에 책을 이동시켜주는 반납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서관의 규모가 얼마나 클지 상상도 가지 않네요!

또한 시민들이 가짜뉴스를 찾아내고 평가하는 법,

전과가 있는 시민들이 직장을 구하는 법,

아티스트를 위한 비즈니스 강좌 등

시민이 도시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강좌를 통해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건축으로 유명한 것에서 끝나지 않고

도서관의 본질적인 역할까지 적극적으로 그리고 유능하게 해내고 있는  
시애틀 도서관, 정말 칭찬하지 않을 수 없는 곳인 것 같습니다.

도시와 건축, 도서관과 시민이 어우러진 매력적인 시애틀 도서관을  
꼭 한번 가보고 싶어집니다.

# “도활부 활동소식”

## 성북 한 책 읽기 공모전

성북구에서는 성북구 한 책 읽기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과 함께 한 권의 책을 선정하고 읽고 토론하는 독서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성북 한 책 읽기 독서운동이 10주년을 맞이하여 축하영상 공모전을 열었다.

평소에 성북구 도서관들과 많은 연계활동을 해왔던 도서활동부도 이 공모전에 참여하게 되었다.





도서활동부가 제작한 축하영상은 공모전에서 우수작으로 선정되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던 성북 책 모꼬지에 업로드 되었다.



이 활동에 참여했던 이주진 학우는 다음과 같은 활동 소감을 전했다.

한 책 읽기 공모전은 다른 부 친구들도 함께 했습니다.

경복궁, 시립미술관 근방을 돌며 촬영을 했습니다.

서로 이렇게 찍자 저렇게 찍자 하며 웃으며 찍어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촬영에 참여하지 못한 부원들은 영상편지를 통해 함께 했습니다.

영상은 성북 한 책 읽기 공모전 우수상으로 선정되어 더 의미가 있었습니다.

에피소드가 있다면 영상의 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상영을 했는데 운영위 중에 이호신 교수님이 계신다고 전해들어 저희끼리 많이 놀랐던 일이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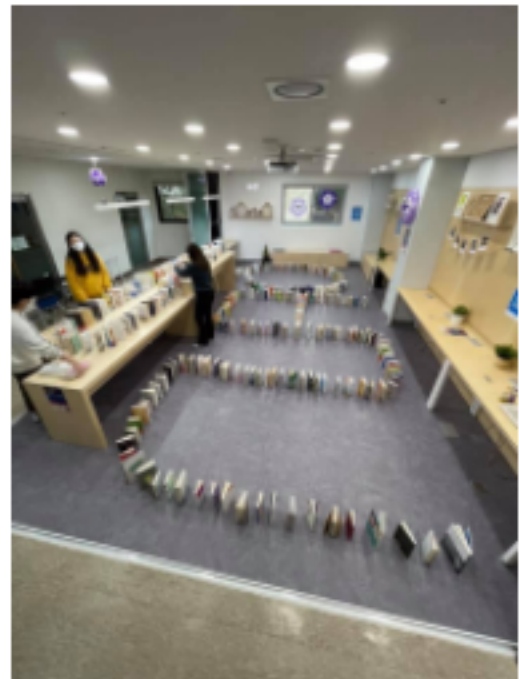
# “도활부 활동소식”

은뜨락 도서관 책 도미노 행사 참여



11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이전에 도서활동부는 은평구의 은뜨락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개관 1주년 기념 행사에 참여하였다. 기념 행사 중 '책도미노' 프로그램에 함께 하였다.

책도미노 행사는 은뜨락 도서관의 공간을 활용하여 책으로 도미노를 만드는 행사이다. 도서활동부에서는 많은 고민과 아이디어 교환 끝에 은뜨락 도서관의 초성과 숫자 '1'을 조합하여 도미노를 만들었다고 한다.



행사 당일 도서관에 방문한 어린이 이용자가 첫 책을 넘어뜨리는 것을 시작으로 성공적으로 도미노를 성공하는 결과를 얻어 냈다고 한다.



이 활동에 참여했던 이주진 학우는 다음과 같은 활동 소감을 전했다.

은뜨락 도서관 책 도미노는

저희 도활부가 처음으로 함께 만난 행사이기에 더 의미가 있었습니다.

본 행사 전 두 번의 만남을 통해 서로의 아이디어를 이야기 하며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미노의 특성상 혼자 잘한다고 완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모두가 조심히 잘 해야 하기 때문에 누군가 실수해도 오히려 장난을 치며

'싸우지 않아요~~~~' 하면서 모두 즐겁게 한 것 같아 재미가 있었습니다.

# “도활부 활동소식”

## 온라인 성북 책 모꼬지

성북구에서는 매년 10월, 11월 경에 [성북 책 모꼬지] 행사를 진행한다. 성북구의 다양한 도서관과 독서모임 등이 참여하는 큰 행사이다. 책에 관심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함께 즐길 수 있는 자리이다. 이 행사에는 한성대학교 문헌정보전공 학생회 도서활동부도 참여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독서를 증진하는 활동을 해왔다.

하지만 2020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성북 책 모꼬지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이용자들이 온라인으로 책 모꼬지를 구경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주제 관련 도서소개 큐레이션, 독서활동들을 소개하였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성북 책 모꼬지에 도서활동부도 참여하였다.



<자연을 담은 북 컬렉션: 책으로, 자연> 주제로 다양한 도서를 큐레이션 하였다.

이 활동에 참여했던 이주진 학우는 다음과 같은 활동 소감을 전했다.

책모꼬지는 작년에도 참여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로 참여여부가 확실하지 않아 걱정이 많았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맞춰 바뀐 온라인 진행방식으로 진행된 책모꼬지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주제 선정부터 책 선정까지 부원들과 투표를 통해 진행돼

깊은 대화를 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래도 막상 결과물을 만들고 제출을 하고나니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된 책모꼬지를 통해

앞으로 온라인 행사에 대해 대체방법과 이에 대한 경험을 얻은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 문화부 활동소식

## 5월 카드뉴스 - 날씨가 좋으면 찾아가겠어요



'봄'이라는 주제로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을 찾다가  
<날씨가 좋으면 찾아가겠어요>를 추천하려고 해요!  
잔잔하면서도 몽글몽글한 느낌을 주는 문체로  
술술 읽을 수 있으실 수 있을거예요☺

과연 이들은 서로에게 미안하다고 보고 싶다고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민간권기에도 삶에 지친 회원은 서울을 떠나  
이곳가 문명화한 복권리의 공간에서 머물게 된다.



그러던 중, 우연히 노부부가 살던 낡은 기안집이  
국나잇 책방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이 시골에 서점...?"

그 책방을 운영하는 사람은 다름아닌 손님이었고  
회원은 복권리에서 지내는 것을 통한 책방에서 알바를 하기로 한다.



"고마워,  
때 안되게 열심히 할게."

"좋아. 담장 내일부터?"

"그녀."

- 남매가 품고온 정이 기쁘고 그 사랑 ♡ -

동창들과의 만남에서 회원은 손님의 책사랑에 대해서  
알게 되는 데 복잡한 기분이 흥분이다.

"그때, 누구였어, 임은실? 좋아했던 사람."

"음... 목회원이었는데."

"시골은?"

"그럼 리가. 모든 첫사랑은 과거 완료야."

- 남매가 품고온 정이 기쁘고 그 사랑 ♡ -

... 사실 유사 이래  
모든 과거는 한 번도 완료된 적이 없다.



드라마 <날씨가 좋으면 찾아가겠어요>의 원작

“ 서로에게 많이 미안한 이들이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보고 싶다고, 후회한다고, 용서해달라고,  
이미 용서했다고...  
그 말들을 비로소 용기 내어 전하는 이야기”

<날씨가 좋으면 찾아가겠어요>, 이도우 지음  
소장위치 : 학술정보관 3층 어문학자료실  
청구기호 : 813.7 \* 712 L

# 문화부 활동소식

6월 카드뉴스 - 모모



6월 카드뉴스는 <모모>를 읽고 제작해보았습니다😊  
<모모>에서 인물들은 미래의 나의 행복을 위해 시간을 저축합니다.

하지만 그로인해 현재의 자신이 희생되고  
결국, '행복'이라는 감정과 멀어져버리고 말죠.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 조그맣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 책으로 여러분이 잠시 멈춰서서 주위를 둘러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모는 원형극장에 살고 있는 아이입니다.  
가파리에 작은 마을이 있어 마을 사람들이 모모의 집을 고쳐주고  
음식을 가져다 주는 등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그러던 마을 사람들에게 희색 옷을 입은 신사들이 나타나,  
시간을 지축하면 나중에 뵈오 그 시간을 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시간 지축 은행은  
저축하신 시간을 보관해 드릴 뿐 아니라  
받으신 시간에 대해 이자를 지불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액수를 받게 되시는 겁니다.”

- '모모' 대본 중 -

희색신사의 말처럼 시간을 아껴며 빠르게 살아가던  
마을 사람들을 보며 모모는 무언가 이상함을 느낍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무언가 못마땅한 기색이나  
피곤함, 또는 불만이 진득하게 배여 있었다.  
눈빛에서는 상냥한 기색이라고는 찾을 수 없었다.”

- '모모' 내용 중 -



모모는  
마을 사람들을 섬복하려고 하지만  
도리어 희색신사들에게 못나게 됩니다.

그러던 중, 한 거북이를 따라가게 되는데 그 거북이는  
시간을 관리하는 호라박사의 거북이었습니다.



호라 박사에게 희생. 신사가 어떤 존재이며  
그들의 목표를 알게 된 모모는 마을 사람들을 구해야겠다고  
마음먹습니다



현재를 희생하며  
알 수 없는 미래를 바라보는  
당신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

〈모모〉, 미하엘 엔데  
학술정보관 3층 어문학자료실  
808.3 ㅂ 966 v.13

# 문화부 활동소식

## 7월 카드뉴스 - 여행의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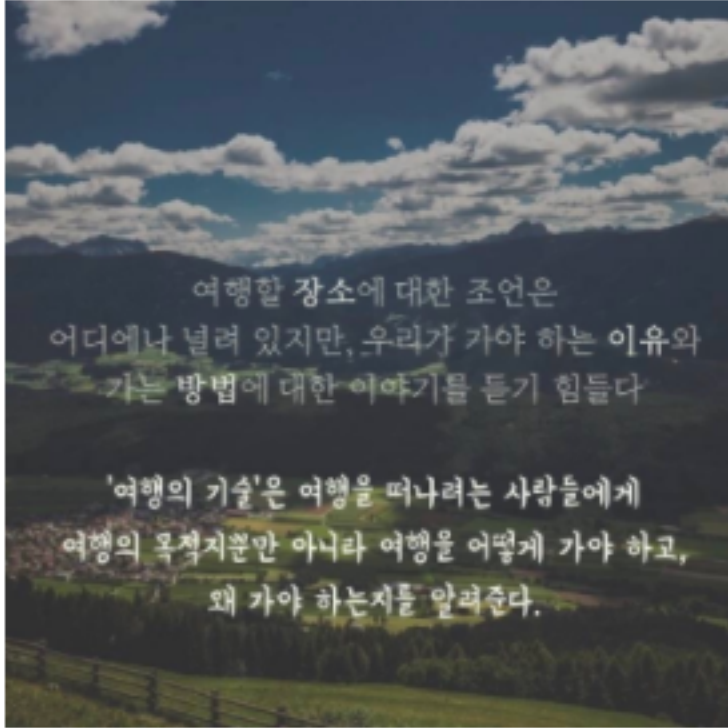


7월의 카드뉴스에서 소개할 책은  
특유의 필체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작가  
알랭 드 보통의 <여행의 기술>입니다!

<여행의 기술>은 여행을 떠나려는 사람들에게 여행의  
목적지뿐만 아니라 여행을 어떻게 가고,  
왜 가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하는 책입니다.

여행을 할 때 흔히들 떠올리는 이미지와는 다른 여행을 독특한 관점  
으로 설명하여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행을 떠나고픈 이번 여름 <여행의 기술>을 읽으며 여행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




# Barbados..

아름다운 열대의 풍경이 담긴 맘플렛을 본 알람 드 보들은 그곳으로 떠나고 싶다는 갈망을 느끼고 바베이도스 섬으로의 여행을 결심한다.

그리곤 데세생트의 조언을 떠올리는데...





"런던의 삼세, 날씨, 시편, 음식, 심지어 나이프와 포크까지 자 주위에 있으니, 나는 이미 런던에 확 있는 것 아닌가?"

"런던이 가서 세로운 심봉감 외에 무엇을 발견할 수 있던 말인가?"

여행의 기술 내용 중







현실은 기대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상상은 고정된 이미지로 이루어지는데  
현실은 그 이미지 사이에 생각하지 못한 게 나타난다

이런 것들이 찾으러 온 바베이도스를 보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든다.



우리는 여행을 하며 지속적인 만족을 기대하지만,

어떤 장소에 대하여 느끼는  
또는 그 안에서 느끼는 행복은 사실 짧다



소설 거꾸로 의 데제생트 공작은  
"상상력은 실제 경험이라는 천박한 현실보다  
훨씬 더 나은 대체물을 제공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여행'을 테마로 던질 수 있는  
모든 질문들에 대한 성찰을 유도하고  
그 해답을 제시하는 책



# 문화부 활동소식

11월 북트레일러 영상 -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11월은 힐링이라는 주제로 책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이 책은 글쓰이의 고민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전부터 '왜'라는 질문을 자주 해온  
글쓰이는 자신이 왜 초라함을 느끼는지 궁금해 했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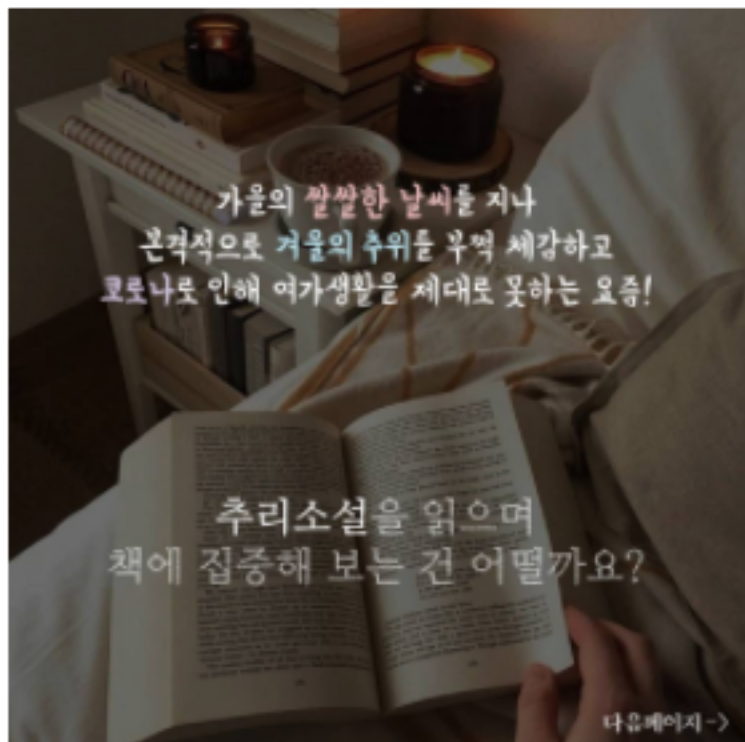
그것이 자신 때문이 아니라는 걸 알게되고 나서  
글쓰이는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위로하고자 이 책을 펴냈습니다.

여러분도 이 책으로 인해 공감하고 위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



# 문화부 활동소식

## 12월 카드뉴스 - 파리의 아파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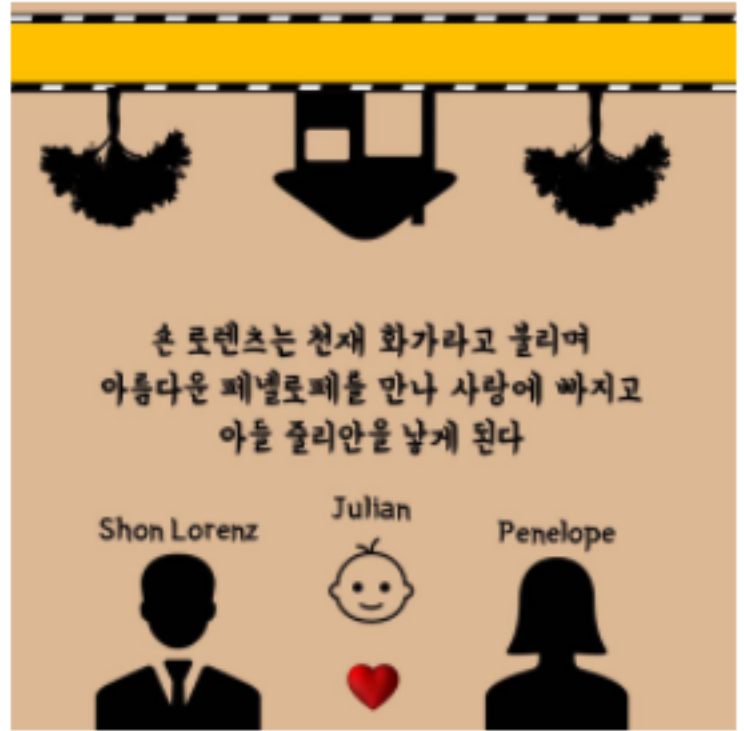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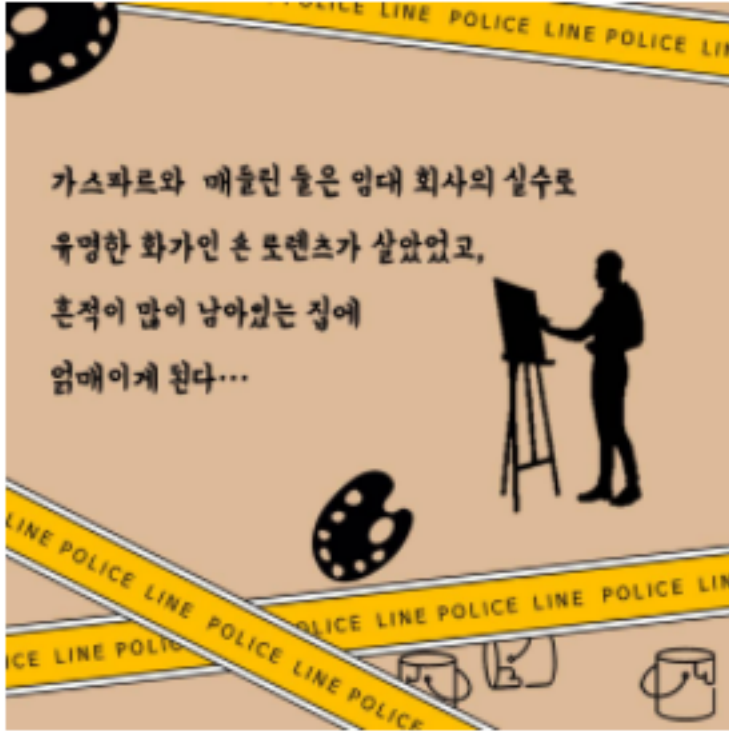


12월의 카드뉴스로 소개할 책은  
프랑스 작가 기욤뫼소의  
<파리의 아파트> 입니다.  
이 소설은 남녀가 우연히  
유명한 파리의 화가 집에서  
동시에 머물게 되면서  
시작된 추리스릴러 소설입니다.

주인공 둘이 서로 다른 인물들을 만나며 한 인물에 대해  
다른 평가를 내리는 것이 소설의 재미를 이끌어내는 부분입니다.

종강한 지금!

입체적인 캐릭터를 써낸 기욤뫼소의 의도를 생각하며  
같이 추리하면서 읽어보는건 어떨까요?





피렌체에서의 행방은?

미발표 작 그림 세 점?

Bernard

Medelin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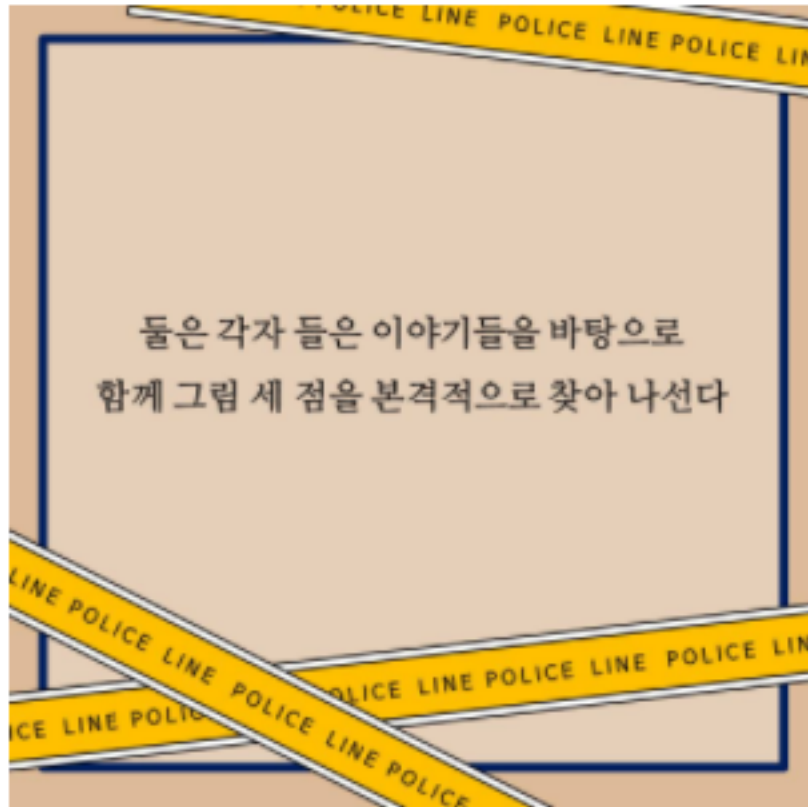
매들린은 전직 경찰로서  
손 로렌츠의 친구이자 집의 법적 상속인인 베르나르에게  
"미발표 작 그림 세 점을 찾아달라"는 의뢰를 받는다

매들린과 가스파르는  
서로 다른 손 로렌츠의 주변 인물들을 만나면서  
사건에 대한 실마리를 잡게 된다

매들린과 가스파르는  
서로 다른 손 로렌츠의 주변 인물들을 만나면서  
사건에 대한 실마리를 잡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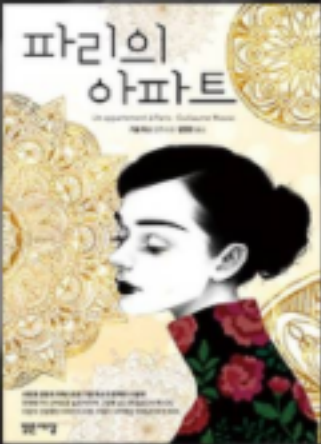
매들린과 가스파르가 만나는 사람들은  
서로 달랐고

한 인물에 내리는 평가도 각각 달랐다.



과연 이들은 그림 세 점을 찾았을까요?  
그림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었을까요?

추리와 더불어 가족이라는 개념을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책,  
**파리의 아파트**를 읽으며 추리해 보세요!



학술정보관  
 파리의 아파트 /  
 기욤 뒤초 지음  
 408p 프랑스 문학, 프랑스 소설  
 등록번호 : 0732306  
 소장위치 : 3층(어문학자료실)  
 청구기호 : 863 ㅁ 752 ㅍ

# 문화부 활동소식

12월 책 한 구절 메시지 사업



괜찮아 조금 느려도 조금 서툴러도  
때로는 너 자신이 바보 같아 보여도 괜찮아 ♡  
너는 분명 올바른 길로 가고 있어 👍  
그러니 너도, 네 인생도 괜찮을 거야  
불안해하지 마  
모든 것이 다 괜찮으니까 😊

고속도로에서도 모두 똑같은 속도로 가지 않는데  
인생에서 어떻게 모두가 똑같은 속도로 갈 수 있겠어 😞  
네 앞에서 너보다 빨리 가는 차를 보기보다  
네가 가야 할 길에 집중해 ♪  
네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만 생각해  
너의 앞에 누가 있든 상관하지마  
그저 너의 길만 바라봐 😊

- <삶에 지친 나에게 내가 해주고 싶은 말> 중에서

다가오는 기말고사, 파이팅하세요!! 😊

# 홍보부 활동소식

## 학술대회 & 문정인의 밤 포스터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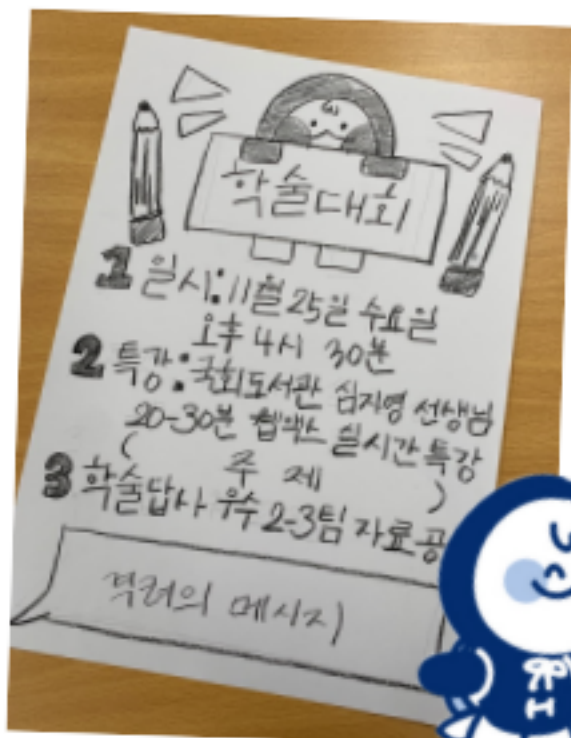


학과의 다양한 행사와 공지를 자보로 제작하는 활동을 하였던 홍보부는 올해 코로나로 다양한 행사가 취소되는 바람에 제대로 된 활동을 진행하는데에 어려움을 겪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격상되기 이전에 학생회실에서 모여서 학과행사인 학술대회와 문정인의 밤 포스터를 만나서 제작하였다.

하지만 올해 온라인으로 수업이 대체되면서 탐구관, 우촌관 등에 자보를 걸어놓을 수 없어 제작한 자보는 사진촬영을 하여 학생회 SNS 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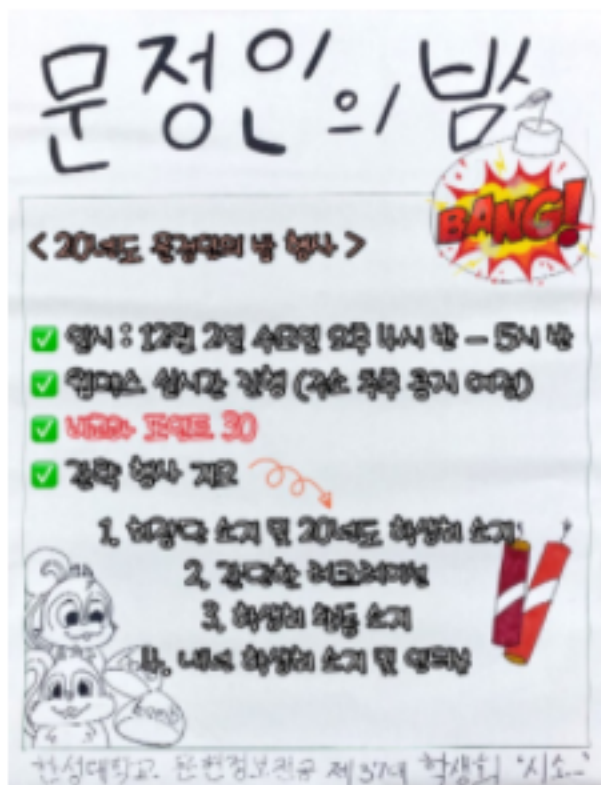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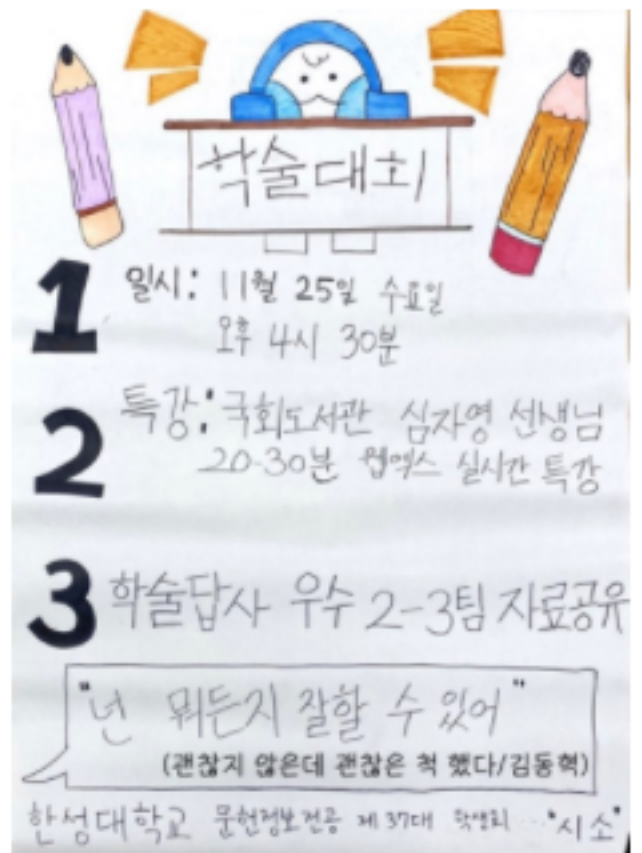


올해 한성대학교에서 최고의 활약을 보여준, 상상부기를 포스터에 추가하기로 하였다. 간단하게 초안을 그린 뒤, 학술대회 홍보포스터를 제작하였다.



완성된 포스터는 오른쪽 사진과 같다.

격려의 메시지는 문화부에서 책 한 구절 메시지 사업을 위한 몇 가지의 문구를 제공받아서 작성하였다.



문정인의 밤 홍보포스터는 행사 개요가 비교적 늦게 정해지는 바람에 틀만 제작한 후에 상세한 설명은 포토샵을 통해 추가하였다.

# 6

## **2020년을 마무리하며,**

- 20년도 학생회비 사용내역
- 회장단 공약 이행 결과
- 회장단 및 20년도 학생회 소감

# 2020년을 마무리하며,

20년도 학생회비 사용



2019년도 문헌정보전공 학생회 '가온' 에게  
이월받은 학생회비는 2,823,628 원 입니다.

1학기 학생회비 사용내역	
지난해 이월금액	₩ 2,823,628
통장 이자	+ ₩ 953
총액	₩ 2,824,581

2020년 1학기에는 코로나로 인해 모든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학생회비 사용내역이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2학기 학생회비 사용내역

1학기 이월금액	₩ 2,824,581
기말고사 간식사업	- ₩ 172,980
2020년 결산	+ ₩ 1,207
총액	₩ 2,652,808

통장이자 953원이 추가되어 1학기 이월 학생회비 금액은 2,824,581원이었습니다.

이후 2학기 기말고사 간식사업을 진행하여 172,9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품 목	단 가	수 량	금 액
서브웨이 에그마요 15cm + 쿠키 세트 기프티콘	5,766원	30	172,980

이후 2020년 결산 금액으로 1,207원이 추가되어 총 학생회비 금액은 2,652,808원임을 알려드립니다.



## 20년도 문헌정보전공 학생회 회장단 공약이행 결과

저희 '시소'는 회장단의 공약이행 결과를  
상반기, 하반기에 나눠서  
학생회 공식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계정에 공개하였습니다.

### 정학생회장 이지희 공약소개 및 진행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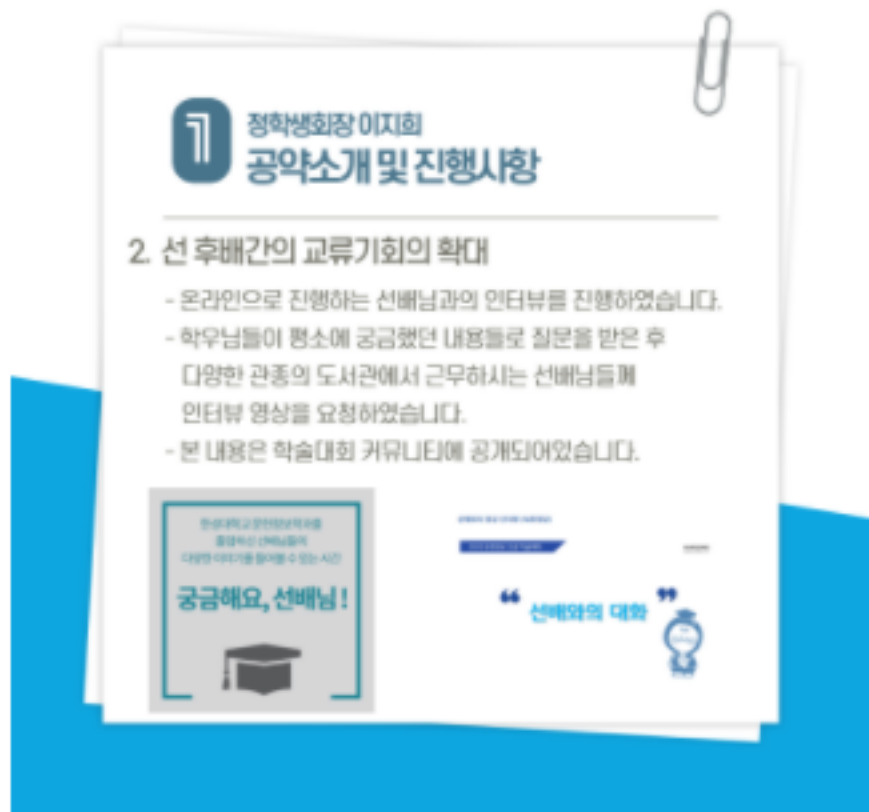


먼저, 학과정보 및 학과행사 등 각종 알림의 활성화입니다.

이 공약 밑에 세부공약으로 오픈 채팅방을 이용한  
학과정보 활성화와 기존에 존재했던 한성지정 페이스북 페이지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인스타그램 계정은 보기처럼 꽤 활발한 활동과  
팔로워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시각적인 학과공지, 행사알림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졸업한 선배와의 교류의 기회 확대입니다.

한성대학교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하시고 관련 분야에서 일하고 계시는 선배와의 간담회 및 설명회를 열어서 다양한 직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약속드렸던 공약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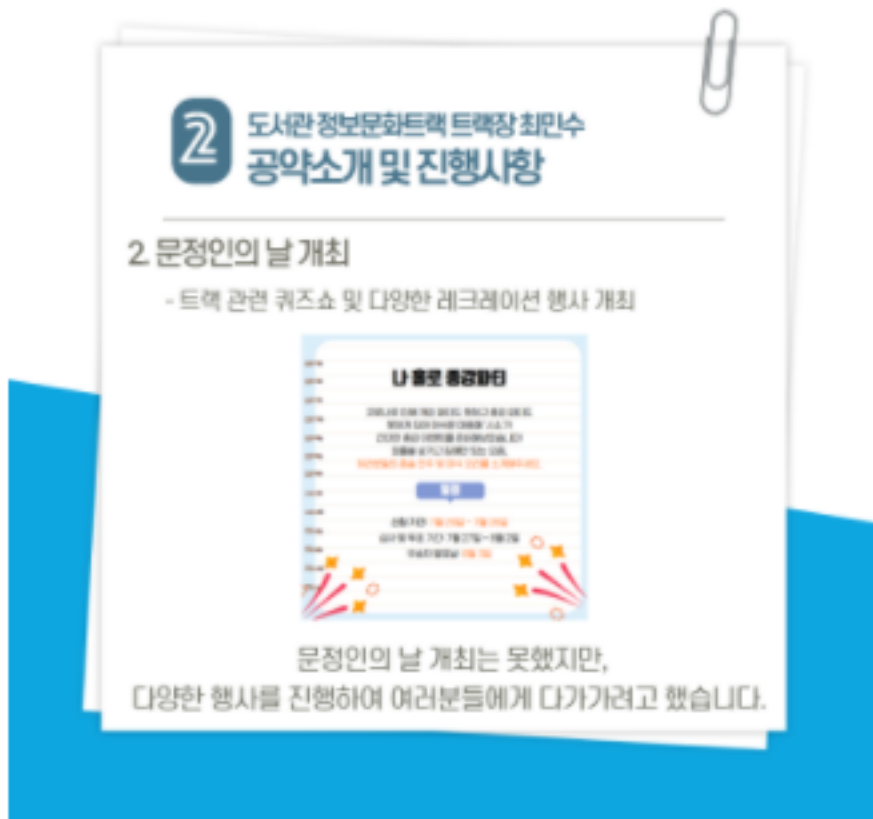
코로나로 인해서 간담회와 설명회를 열 수는 없었지만, 학술대회에 참여하신 분들도 보셨겠지만, 다양한 직종에서 근무하시는 선배님들이 인터뷰 영상들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들이 도와주셔서 진행했기에 이행할 수 있었던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공약은 트랙 간 연결고리입니다.

트랙간 연결고리는 트랙과 관련된 비교과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것으로 졸업요건인 비교과 800포인트를 모아야 한다는 점과 여러분들이 트랙과 관련된 더 많은 활동을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공약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만남을 필요로 하는 비교과 프로그램은 공지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비교과 프로그램은 학과와 학생회 차원에서 공지가 이루어졌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원래 이루어져야 했던 다양한 행사 진행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쉽지만 학생회 차원에서 다양한 행사(도서관대회나 트랙설명회, 도서관사연구회, 학과 장학금 소개 등)를 공지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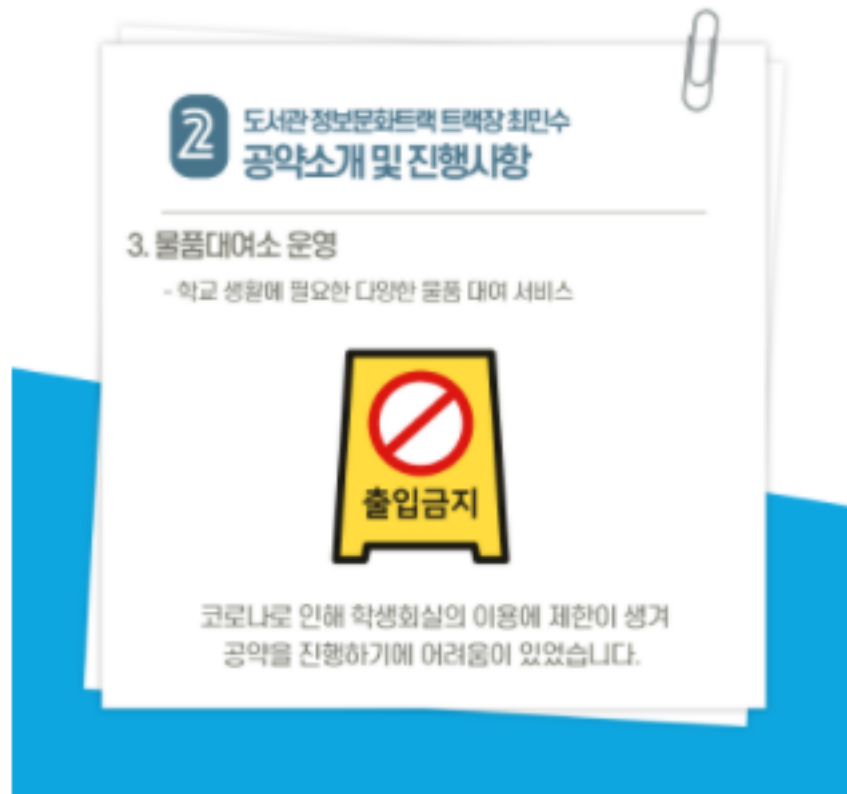
두 번째 공약은 문정인의 날 개최입니다.

문정인의 날은 많은 사람들이 트랙에 좀 더 가까워지고 친해질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다 계획한 공약으로 트랙 관련 퀴즈쇼를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만남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여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대신, 온라인으로 같이 즐길 수 있는 종강파티를 기획하여 다양한 행사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려고 노력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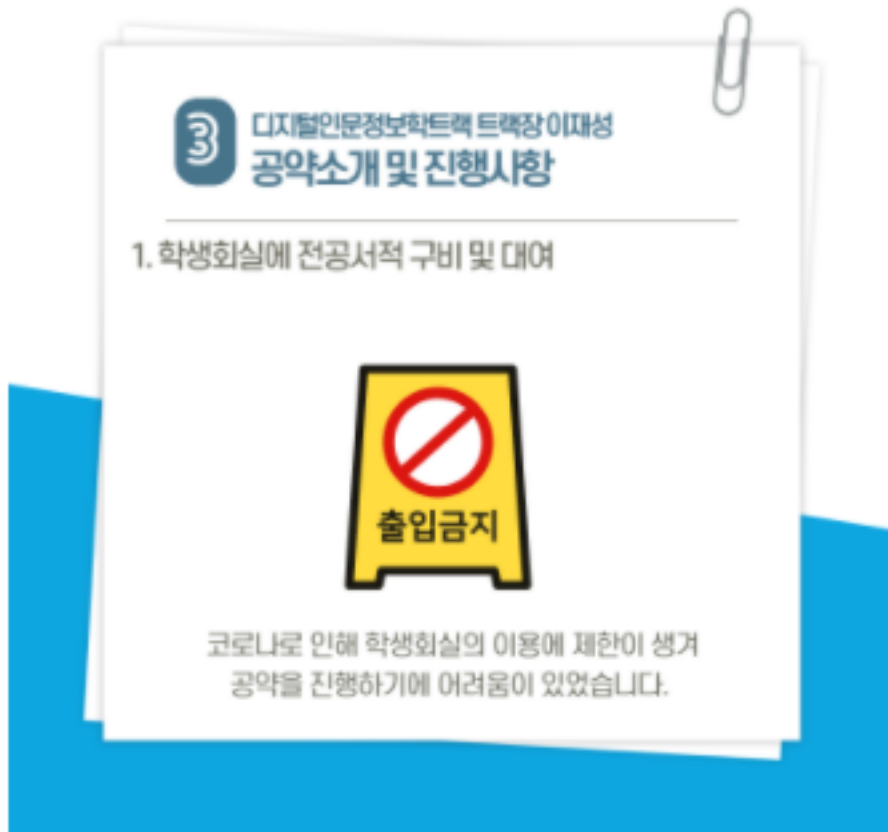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물품대여소 운영입니다.

학우 여러분들이 학교생활을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만든 공약으로 학교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대여하는 대여소를 운영하는 공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대여소를 운영할 학생회실의 출입이  
제한되었고 학교생활이라고 할 것 없이 대부분 모든 것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져 운영하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약속드린 것들을 모두 지키지 못해 다시 한 번 죄송한 말씀드리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켜봐주신 학우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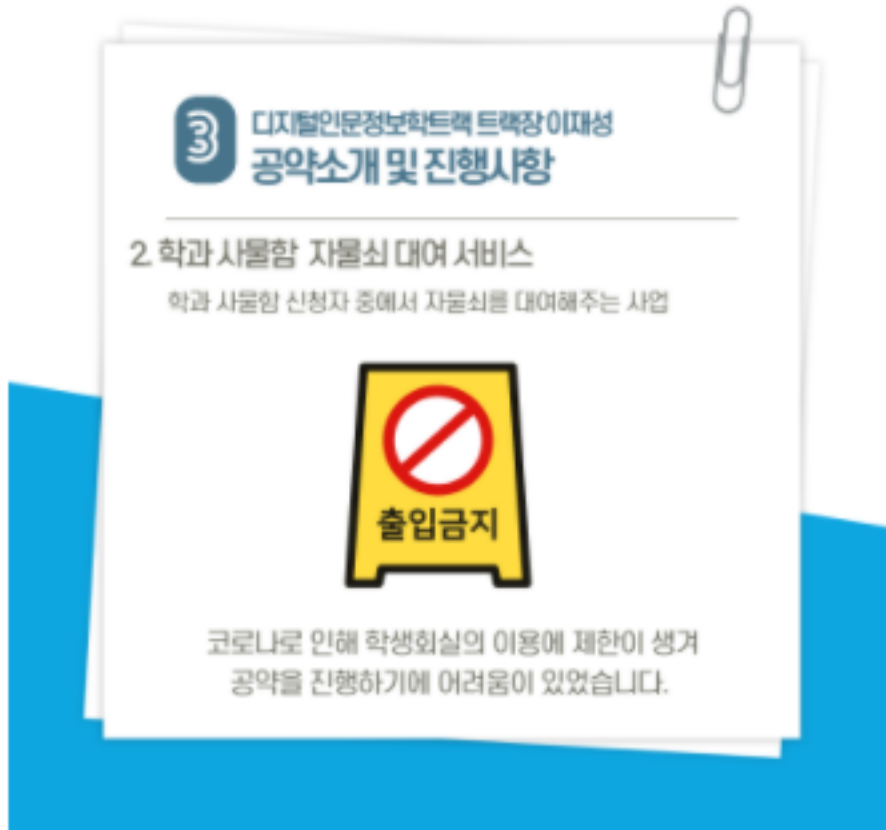


첫 번째 공약은, 전공서적 대여사업입니다.

이미 지난 학기의 전공서적을 기부 받거나 학우들이 원하는 전공서적의 수요조사를 통해 구매하여 학생회실에 구비한 뒤 대여해드리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공 책 가격으로 인해 학우분들이 부담을 느끼실거라 생각해 준비한 공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19로 인하여 학생회실의 개방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었기에 진행할 수 없었던 아쉬운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사물함 자물쇠 대여입니다.

사물함 보안을 강화하기위해 내걸었던 공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공약 역시 마찬가지로 코로나 상황에 따라 사물함 대여사업을  
진행하지 않았기에 이행 할 수 없어 아쉬운 마음이 큼니다.



세 번째는 공약 이행내역 공개입니다.

여러분에게 청렴한 학생회로 다가가기위해 걸었던 공약입니다.

지난 1학기에도 공약 이행 내역을 페이스북에 공개하여

학우들에게 다가가려고 노력했으며

이번 2학기때도 최종 공약이행내역을 정리하여 SNS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1년 믿고 지켜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회장단 활동 소감

### 제 37대 문헌정보전공 정학생회장

이지희



안녕하세요. 제 37대 문헌정보전공 정학생회장 이지희입니다.

올 한해 정말 다양한 활동으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학생회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기대감과 열정이 코로나로 인해 많이 무산되었지만,  
이럴수록 학우분들의 말에 더 귀 기울이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래도 무사히 2020년을 마무리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혼자서는 이룰 수 없었을 일인데 저를 도와 노력해준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코로나로 다소 허무하게 보낸 2020년을 뒤로하고  
2021년에는 원하는 일 모두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회장단 활동 소감

### 제 2대 도서관정보문화트랙 트랙장 최민수



먼저 다사다난 했던 2020년을 보내고 무사히 임기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많은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더 좋은 활동과 결과를 보여드리지 못해 아쉬움이 많이 남은 2020년이었습니다.

2020년 도서관정보문화 트랙장으로서 활동하면서 정말 행복했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어 또, 학생 여러분들을 위해 일할 수 있어 더욱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느낀 감정을 모두 표현하기에는 부족한 글 솜씨지만  
2020년은 저에게 있어 최고의 한 해였습니다.

저에게 최고의 한 해를 선물해 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리며 2021년에 이루고자  
다짐한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회장단 활동 소감

### 제 2대 디지털인문정보학트랙 트랙장 이재성



제 2대 디지털인문정보학 트랙장 이재성입니다.

원래라면 우리 트랙 학우들을 찾아뵙고 직접 발로 뛰며  
여러 행사들을 통해 인사드렸어야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아쉬운 1년이 된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임기가 끝나더라도 뒤에서  
우리 트랙과 우리 과의 무한한 발전을 위해  
항상 응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니겠습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2021년 하시는 모든 일들 잘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부 활동소감

### 19 이민경 (기획부 부장)

코시국이 다한 한해였던 것 같다.

하지만 올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부족한 점은 보완하고, 강점은 살려서 의미있는 한 해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있다. 아쉬운 점은 신입생 친구들과 골고루 친해지지 못했다는 게 가장 걸리지만, 그래도 기획부 친구들과 소규모 답사도 다녀왔고, 함께 활동하며 많이 가까워진 듯 해서 좋다!! 내년에는 부디 조금이라도 대면으로 학과 행사를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해보고싶다!

### 19 서지영 (기획부 차장)

코로나 19로 인해 학교에 자주 가지 못하고 많은 활동을 계획했지만 실행하지 못하였다. 나뿐만 아니라 아마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잘하고 있는 건지도 잘 모르게 한 해가 지나간 것 같다. 해야 할 것들 중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은 하려고 노력했고 최선을 다하였다. 벌써 한 해가 가고 더 다양한 활동을 하지 못해서 정말 아쉽다. 그래도 다 같이 열심히 활동하고 잘 따라와 줘서 너무 고맙웠다. 그동안 같이 활동했던 기획부에게 정말 고맙고 다들 수고했다고 말해주고 싶다!



### 201이연재

코로나 19로 인해 학교를 많이 가보지 못하고 선배와 동기들을 만나보지 못해 아쉽다. 하지만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게 되어서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다음 학기에는 대면으로 많은 활동을 해보고 싶다.

### 20 성지희

많은 기대를 품고 대학에 들어왔지만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아쉬움도 많은 한 해였다. 그러나 가끔 선배, 동기들과 만나고 3번 뿐이었지만 대면 수업도 가며 소소한 즐거움이 가득했던 것 같다. 다가올 2021년은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는 행복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

## 20년도 도서활동부 활동소감

### 19 이주진 (도서활동부 부장)

코로나 사태로 부장으로서 부원들과 함께하지 못한 것들이 많아 아쉬운 마음이 큼니다. 그래도 하나의 활동을 함께 할 수 있었어 좋았고, 내년에는 즐겁게 함께하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19 김도원 (도서활동부 차장)

온라인으로 다양한 외부활동을 추진해 나가면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나간 것 같아 뿌듯하고 더 재미있기도 했다. 많은 것을 배우고 나의 능력치도 키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 19 금다빈 (도서활동부 부원)

이번년도는 많은 활동을 하기엔 어려웠지만 도활부를 통해 영상에도 참여할 수 있었고 학생회를 하지 않았다면 하지 못했을 경험들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

### 18 이슬기 (도서활동부 부원)

2020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활발히 하지 못해 아쉬운 점이 많다. 11월에 거리두기가 1단계로 바뀌면서 부원들 얼굴을 처음봤는데 너무 반가웠다. 내년에는 코로나가 잠잠해지길 바라며 성북책모꼬지, 도서관 답사, 봉사 등 여러 활동들을 온라인이 아닌 대면으로 즐겁게 활동했으면 한다

## 20년도 도서활동부 활동소감

19 오현준 (도서활동부 부원)

이번 학기는 코로나로 인해 작년과는 다르게 책모꼬지 행사와 다른 도서관 견학프로그램에 참가하지 못하고 은뜨락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책 도미노 행사만 간단하게 진행했다. 유일하게 진행된 도활부 활동이어서 정말 재미있었고 다른 부원들을 볼 수 있어서 좋았다.

20 최정현 (도서활동부 부원)

학생회 활동을 통해서 원래는 코로나로 인해 가보지 못 할 학교도 가보고 도서관에 관한 활동도 친구들과 언니들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20 강지민 (도서활동부 부원)

도활부 활동을 하면서 참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도서관 봉사를 통해서 도서관 이용자가 아닌 봉사자로 일하는 뜻깊은 경험을 했으며 다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활동하였기에 재밌었습니다.

또한, 견학하면서 다양한 전문가들을 뵈었고 더욱 더

문헌정보학과에 대해 매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도활부 덕분에 다양한 매력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으며

도활부 활동하기를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20 이에진 (도서활동부 부원)

코로나로 인해 다양한 활동을 해보지 못해 아쉽지만 대학에 와서 해본 첫 활동들이었기 때문에 하나하나 너무 새롭고 재밌었습니다!!

내년에도 재밌게 했으면 좋겠어요 ㅎㅎ

## 20년도 문화부 활동소감

19 신주희 (문화부 부장)

코로나로 인해 신입부원들을 만나지 못했지만 같이 활동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관련 활동에 열심히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9 윤아영 (문화부 차장)

2020년 올 한 해도 즐겁게 활동한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신입부원들을 한 번도 만나지 못해 아쉬웠는데  
다음 해에는 만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19 김지훈 (문화부 부원)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같은 과 학생을 만나지 못하는데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안면을 틀 수 있는 기회가 생겨 뜻깊었습니다.

20 박서진 (문화부 부원)

선배님, 동기분과 문정과 활동할 수 있어서 의미있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20 조유나 (문화부 부원)

문헌정보학생회의 문화부원으로서 카드뉴스도 직접 제작해보고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20년도 홍보부 활동소감

### 17 박남주 (홍보부 부장)

부장으로써 좋은 추억을 남겨주지 못한게 너무 미안하다 😭

다시 못을 기회여서 더 아쉬운 것 같다 흑흑 ..♥

하지만 함께해서 행복했어요

### 19 윤범진 (홍보부 차장)

홍보부 대표 활동인 자보 제작을 비대면으로 온라인 플랫폼으로 진행하게 되서 많이 아쉬웠지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많이 미흡한 제 인솔 잘 따라주고 모두 열심히 참여해준 부원분들께 많이 감사합니다.

### 18 권서영 (홍보부 부원)

코로나 19로 인해 올해 홍보부 활동은 대부분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온라인으로 포스터를 제작하고 학생회 단체 카톡에서 의견을 주고 받았다. 코로나 19 이전 과실에서 다 같이 모여

자보를 그리고 집부 회의를 하던 때가 그리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들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서

마음이 뭉클했다. 부차장님들 그리고 부원들 모두 2020년 수고하셨습니다!

### 19 박민진 (홍보부 부원)

11월이 되어서야 얼굴을 보게 되니 감회가 새로웠다.

오랜만에 포스터를 그리며 활동도 하니 활력 역시 도는 기분이다.

부차장님들과 학생회 회원들 모두 너무 고생했고 코로나 종식할 때까지

몸 건강히 잘 있고 마스크 없는 얼굴로 웃으며 만나자!

## 20년도 홍보부 활동소감

### 19 박지혜 (홍보부 부원)

코로나 때문에 같이 모여서 활동할 수 없다는 게  
너무 큰 장애물이 됐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다 같이 모였던 게 잊그제 같은데 벌써 2020년 마지막 학기가  
끝나가네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활동 진행해주신 분들 감사하고  
얼마 안 남은 시간 함께 잘 끝마쳤으면 좋겠습니다!

### 20 김연지 (홍보부 부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하지 못한 탓에 아쉬움이 크지만 활동  
하나하나에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부장님, 차장님들을 비롯한  
모든 부원 선배님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은 시간 잘 마치고 앞으로도 자주 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 19 조민정 (홍보부 부원)

코로나로 인해 기존에 하던 대부분의 활동을 하기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열심히 하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같이 자보는 어떤 식으로 그럴지 회의하고 고민하면서  
“아 그래 이게 진짜 학교 생활이지” 싶었습니다.  
다들 힘든 이 시기 끝까지 잘 해쳐나가길 바라고,  
다시 만날 때 웃는 얼굴로 만나요!

# 발행정보

편집 : 18 이지희

기사 : 제 37대 문헌정보전공 학생회 '시소' 구성원

발행일 : 2021년 1월 4일

발행처 : 응용인문학부 문헌정보전공 '길이남을 편집국'

발행인 : 18 이지희



## 한성대학교 문헌정보전공

(도서관정보문화트랙 / 디지털인문정보학트랙)

제 37대 학생회 [시소], 길이남을 편집부



02876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진리관 402호

02-760-4087 (크리에이티브 인문예술대학 통합사무실)

02876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우촌관 207호

02-760-5945 (문헌정보전공 학과사무실)

[www.hansung.ac.kr/web/kis](http://www.hansung.ac.kr/web/kis) (문헌정보전공 학과홈페이지)